

법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일시 정지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에서 해임됐던 이상원 전 교수(사진)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이 24일 법원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약 2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교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주문을 통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이 전 교수)가 채무자(학교법인 총신대)의 교수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래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첫 번째 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강의 중) 한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알마든지 자국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등의 발언은 노골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강의를 들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2번째 징계사유(2차 피해 유발) 관련 또 "채권자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채권자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한 채권자가 총학생회 회장

에게 2019년 12월경 몇 차례에 걸쳐, '총학생회가 게재한 대자보로 인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채권자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징계사유(학내 문란)에 대해 아울러 "제3징계사유는 채권자가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

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무자(총신대 법원)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튼 경위,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의 태도, 이 사건 신청에 이튼 경위, 나이가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배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다만 총신대 측의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며 자신을 지지해 준 여러 교계 단체들과 총신대 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교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배려를 보내주셨다.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 목소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이하 진평연)이 창립됐다. 진평연은 498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혔다. ▶관련기사2면 ©노형구 기자

이영훈 목사 “조용기 목사님 빠른 회복 위해 기도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 중 교회 성도들에게 최근 경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목사는 26일 주일예배 설교 전 “오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경미

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정상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후 기도하면서 그는 “사랑하는 조용기 원로목사님,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시니 속히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했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목사는 근래 여의도순복음교회 4부 주일예배에서 설교해 왔으나 이로 인해 이날 설교를 하지 못했다. 김진영 기자

“온라인 예배는 재난상황에 따른 임시방편”

서울신대 조기연 교수, 기성 ‘뉴 노멀’ 세미나서 강조



조기연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세미나 영상 캡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재 목사)가 최근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조기연 교수(서울신대 예배학)는 우선 ‘주일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2세기 순교자 제스틴은 예배에 관해 기록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결석자들에게 성찬의 빵을 가져다 주라고 명하고 있다”며 “이는 예배에 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했고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배려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주일예배 모임은 신중해야 한다. 우선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도와주어야 하며 (롬12:15)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화면을 보며 참여하는 예배는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를 담보할 수 없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 ‘레이투르για’(leitourgia)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예배학

적으로 볼 때에 혼자서 하는 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개인적 경건에 속한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예배는 결코 부활경축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공동체적 예배의 풍성함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임시방편적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교회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오프라인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보조적인 기능으로 작용해야 하며, 오히려 온라인은 교육이나 상담 등 예배 외적인 영역에서

서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는 이제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대비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성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나

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함으로써, 그 편리함에 맛을 들었거나 심지어 온라인 예배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교회예배의 출석률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공동체성, 소속감, 정체성을 주지 못하는 물론 정서적인격적 만족감과 충족함을 주게도 한계가 있다”며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더 좋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어야 하며, 교회에 와서 하는 예배, 교육, 일대일 양육, 친교 등이 온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교회는 온라인 영역을 활발히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3,4면 김진영 기자

한국선교KMQ 포럼
“교회 예배 회복이...” ▶ 7면

개그맨 조래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 23면



SKYPOLIS
 스카이폴리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선보이는
 새로운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5호선 미사역 8월 8일 개통 **9호선 하남미사(연장추진)**
 -9호선 하남미사 연장추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 '광역교통 2030' 비전(2019. 10. 31) 참조-

지식산업센터 1173실 | 기숙사 392실 | 근린생활시설 400실
 분양 문의 **010-5618-7343**

임대케어 서비스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재산세 37.5% 감면 혜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
 (상향추진 대상)

1 미사동 941-1 사행수탁사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시공위탁사 **(주)세움건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설계계획, 청호계획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10월 31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참조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 평등하게 한다? “가짜뉴스”

진평연,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첫째, 차별금지법(안)은 남성·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한다. 양성평등만을 인정하는 헌법 36조에 위배 된다”며 “둘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성애 반대 교리를 견지하는 개신교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교분리라는 헌법 제20조에 위배돼 성직자의 포교의 자유와 신앙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미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정의했다.(그러나) 이법(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사법적 표현마저도 부정당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넷째, 동성애 교육만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적시한 헌법 31조 4항에 위배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모든 기독교방송을 포함한 언론, SNS 등이 지닌 언론의 자유를 차단한다. 즉 헌법 제21조에 위배 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여섯째, 지나친 과잉 평등 사상으로 헌법 전문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 일곱째,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은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고 전체이익을 방기함으로써 헌법의 국민주권(제1조)을 침해한다”며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심대하고,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 정의당은 속히 철회하고 국민들은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분라·구별·배제·거부 등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특정 개인 및 집단을 지목하지만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별금지법 처벌 사례를 보자면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동성 간 성행위라는 ‘인간의 행위’를 비난해도 동성애 지지자가 정치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비난 설교’로 해석 적용한 뒤 처벌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그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등이 참여한 ‘2017년 인권위원회 혐오실태 조사 보고서’는 개인과 집단을 염두하고 말하지 않은 것도 동성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이성애를 정상이라는 완곡한 표현도 차별행위”라며 “특정인을 비난하지 않았

어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차별금지법에 적용하는 해의 사례들이 있다. 동성애 행위자를 지목하지 않은 동성애 비판이 차별금지법 차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해의 사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 반대’) 노방 설교를 차별금지법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위반 영역은 굉장히 넓다. 고용·재화·교육·행정 영역 등”이라며 “답임목사가 부목사를 향해서 설교할 때는 고용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공급자 안에도 교회가 포섭될 수 있다. 교육에는 신학대가 포함된다. 행정 서비스 안에는 교도소가 포함된다. 차별금지법은 앞선 장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나 ‘동성애 반대 강의’ 모두를 금지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비난·반대 설교’는 법 위반이 아니라며 ‘각정 마시라고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포섭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보수적 법률가들의 해석’이라며 “물론 인권위가 ‘노방 설교’를 차별사유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지침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민법을 경유하면 보장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처벌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도 행정벌로서 엄연히 처벌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 설교자’를 처벌한다는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제보자 불이익 조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 전용태 변호사, 진평연)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뉴스앤조이의 가짜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형구 기자



명재진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치에 따른 징역형도 명시했다”며 “현재 대다수 교단 헌법들이 목사나 성도 중 동성애 옹호자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제보할 수 있어 처리 관계자 전원이 처리 행위를

하면 차별금지법안의 ‘직접적 제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가짜뉴스다. 헌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여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형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구성 요건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범위에 특정 집단을 포함시켜 집단에 대한 혐오도 차별대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공무원들이 ‘퀴어행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이 시민인권침해구제는 행위에 대한 반대조차 사람에게 대한 혐오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그는 “현재 목사들의 강단설교가 유튜브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금지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이 있다”며 “법적 처벌은 형법 이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반대 설교’도 차별금지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도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4호와 제5호 불리한 대우·표시·조장·광고·행위로 반동성애 설교를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라며 “길거리에서 하는 반동성애 구호·현수막이 다 적용될 수 있다.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을 합쳐놓은 게 장혜영 의원 발의안”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막자” 진평연 창립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히 투쟁”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상임대표 전용태 변호사, 이하 진평연)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먼저 전용태 변호사(진평연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진평연에서 추구하는 바는 진정한 평등이다. 지금 인권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잘 밝혀내서 이를 잘 모르는 사람과 입법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알려 진정한 평등을 이루자는 게 설립 취지”라며 “종교계, 시민계 등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계춘 신부(가톨릭 원로)는 “극소수이자 아주 예외적인 성향인 동성애·동성혼은 땅의 길”이라며 “각자의 자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종교적 신념·양심적 발로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의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라는 창조질서를 허물고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린다. 옳고그름, 진리·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위험한 시대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박사(송실대 명예교수, 기독교술원장)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했다. 김 박사는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첨가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를 인권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동성애는 잘못된 성적인 탐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꾸려진다. 이것이 허물어진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를 차별조항에 넣고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하는 건 잘못”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다. 동성애에 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불리한 처사가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양심적으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금지하고 징벌적 조항까지 넣는 건

역차별이다. 곧 동성애 독재다. 동성애자들만이 특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모임이 모든 종교와 함께 보편적 윤리를 세우자는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진평연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가시·가시·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는 달리 정의당의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에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관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도박사, 마약사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피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진평연은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

(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해 좌절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가시·가시·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 간의 결합, 다자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수출길이 막혀 힘드셨나요?

현지 재고관리나 물류인프라 구축이 고민이신가요?

아마존, 알리바바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를 원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최대 2천만원 한도 현지 물류비용 70% 지원 !!

모집기간 : 연중 수시(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www.kotra.or.kr/biz > 맞춤형 서비스 > 해외물류네트워크

박동찬 목사 “신앙과 삶 분리되지 않는 다음세대 훈련, 이렇게..”

“2020코리아페스티벌, 코로나로 2021년 6월로 잠정 연기, 청년집회로 준비 중”

50인 선교지도자 초청 타겟(TARGET) 2030 전락회의 ‘평창포럼 2020’ 이튿날인 24일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목사(KWMA 난민선교영역 실행위원 회위원장)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다음세대 방안’을 발표했다.

일산광림교회 드림트리(중고등부)의 사역 사례 등을 소개한 박동찬 목사는 “다음세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려면 교회에서부터 훈련해야 한다”며 “보통 교회에서 훈련이라 하면 봉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직장설(IT셀, 디자인셀 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청년들에게 미래 장업을 꿈꾸게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 교회에서 장업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카페 등 4개 회사를 창업했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창업한 자리에서 목회자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해준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실생활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나. 그것을 없애기 위해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선교사 훈련을 하라’며 ‘너희들은 창업한 그곳의 목회자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박동찬 목사는 또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학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창의적인 일에 익숙

하지 않은 청년들을 보고, 중고등부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고등부를 들여다보니 중고등부는 어떻게든 교회에 못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며 “학교는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 친구들을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바꾸는데, 교회도 똑같다. 학교는 다닐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중고등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접근을 시도하여 1-3학년부를 통합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 친구들을 영입하도록 했다. 그러자 유기견동아리, 힐링(온천)동아리, 영화동아리 등이 생겼다. 학년 중간이라도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좋아하는 선생님 영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박 목사는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더 머물고 싶어한다”며 “시험 때는 보통 출석률이 40%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시험 때에도 출석률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주체가 되면서 나도 세상에 나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신앙교육을 할 수



박동찬 목사가 다음세대 사역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KWMA 영상 캡처

있다”며 “목사, 전도사, 교사에게도 자발권을 주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증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고등부 담당 목사가 학교를 다니며 간식 등을 전달하는 간지배달(간식 지정 배달), 우편함에 과자와 편지를 넣어주는 3분 심방, 비전트립, 캠프, 친구를 초청하는 빈티지위임과 토요일 삼겹살 파티 등을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로 모임을 갖지 못한 기간에는 아이들 이름으로 각각 화분을 만들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씩이

난 화분을 나눠주었다고 했다. 화분을 만들고 가꾸는 과정은 유튜브로 촬영해 공유했다.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사진을 찍고 공유하여 늘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이들의 빈자리에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했다.

박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을 온라인 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그

리워한다는 영상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교회가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가 미래의 잠재적인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영역에서 신앙과 실제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주관 2020코리아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박동찬 목사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코리아페스티벌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 6월로 일단 연기했다”고 알렸다. 박 목사는 “(행사를) 연기하면서 컨셉을 청년집회로 가려고 한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CCC 등의 다음세대가 10만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고, 일회성이 아니라 끝난 후 청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달라”로 요청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평창포럼 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전략’을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 중이다. 강사, 참가자, 스태프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 △디지털 미션 플랫폼 △차세대 및 3040 동원 운동 △말씀과 중보기도 운동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선교의 총체적 혁신 등 6가지 아젠다에 대한 50여 명의 강사와 그룹 토론, 합심기도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차별금지법, ‘차별’과 ‘차이’의 의미 왜곡”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국회 앞 집회 개최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소속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험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결국 동성애(성적지향)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기 위한 임은 수차례의 입법 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성적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 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



피켓팅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 노형구 기자

통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종교’, ‘사상’ 등을 두고 있다. ‘종교’ 차별금지 규정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상’ 차별금지 규정으로 반헌법적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상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소속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4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노형구 기자

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민연합은 특히 “차별금지법에는 최하 500만 원부터 피해액의 2~5배까지 인정되는 형벌의 의미가 가미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입증책임이 전산화되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소송비용부담과 더불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신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파탄을 감수해야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에어컨 청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에코홈케어

문의 010-2661-7562

에어컨 청소를 해야하는 이유!

☑ 에어컨 수명 연장 및 효율 상승!

에어컨에서 더운 공기가 발생하거나,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면, 그것은 분명히 에어컨 점검 및 에어컨청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에어컨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한다면 고장없이 오래도록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

에어컨에 쌓인 먼지 및 이물질 입자는 우리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집이나 회사에 천식 또는 호흡기 질환환자가 있을시 에어컨청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어컨청소로 깨끗한 공기가 실내를 순환하며 모든 사람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 및 불쾌한 냄새 제거!

에어컨의 불쾌한 냄새는 곰팡이 및 박테리아 때문이며, 심지어 죽은 벌레가 죽어 부패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쾌한 냄새는 완전분해 청소만이 원인인자를 완벽히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교육은?

유재덕 교수,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 발표

24일 오후 중앙성결교회 본당에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된 ‘뉴노멀 목회패러다임 세미나’에서 유재덕 교수(서울신대 기독교교육학)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했다.

유 교수는 “COVID-19 팬데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자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력하던 초기 대응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구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신앙 및 신학적 성찰, 온라인 예배와 체계적인 신앙교육, 비대면 문화를 반영한 목회방식과 재정 문제까지 망라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을 기대한다”며 “특히, 안전 문제로 거의 해체 수준에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교육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사회변화로 20세기 이후 전 세계를 주도해온 세계화와 그 이론적 근거인 세계주의가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 밀집성과 대도시, 교역로의 확대는 다양한 감염병 확산을 초래해서 탈세계화나 지역 중심 세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교육체제 전반의 재구성’ 등을 전망했다.

이어 “소득 격차에 따른 학습자들의 교육기회 박탈”, ‘학교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역할 축소와 그에 따른 부모와 가정의 역할 확대’, ‘가정과 학교 간의 교육책임 전이 현상’을 팬데믹의 교육적 영향”으로 꼽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사가 정보나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기능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나 코치의 역할이 더 적합하다. 팬데믹이 종결되더라도 교수(teaching) 중심의 지식 전달은 계속해서 원격수업으로, 교사와 학습자들의 직접적인 대면교육은 인성교육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했다.



유재덕 교수(서울신대 기독교교육학)가 발표하고 있다. © 세미나 영상 캡처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극복해야 할 위기들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교회가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진하고 있다. 둘째, 갑작스러운 권위의 몰락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 간 통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통적인 교회 문화가 소멸하거나 기초부터 변형되고 교회 공간의 재배치 작업이 활성화할 것이다”

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융합 모형으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mobile church school)’의 운영을 시도했다. 사이버 교회와 달리 모바일 교회학교는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교회나 교단의 교육목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간이다. 교회학교 운영의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교육부터 신임교사 교육, 또는 교사 재교육과 고급 기독교 교양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지역교회 수준에서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의미로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시간을 각각 분리해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거나 몇 주는 온라인, 또 몇 주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셋째, 가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홈스쿨링 형태의 교육을 통해 기존 교회학교의 운영을 보완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홈스쿨링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습자들을 방문하는 식으로 홈스쿨링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전자 도서들이나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모바일 도서관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끝으로, 커뮤니티 형태의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 있다. 과거엔 교사중심 학습자중심이나를 놓고 갈등했다면 앞으로는 주제 중심의 진리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진리를 놓고 씨름하는 형태의 커뮤니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교육은 일차적으로 급변하는 주변 상황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종의 불확실한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하는 교회와 교회교육은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 가치(창조질서 보존, 질적 변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교육신학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상호 결합한 모바일(또는 온라인)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동시에 비대면과 면대면 학습을 혼용하는 학습방식을 도입하고, 교회학교와 홈스쿨링을 결합해서 교회와 가정이 교육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끝으로 학습자나 교사 중심 수업을 탈피해서 질문을 통해 주제에 직접 접근하도록 돕는 진리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황지현 기자

“한국 카페를 예배 처소로 준비하신 하나님”

밴티스트프레스가 미 남침례교단 산하 국제선교위원회(IMB)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가 예배당을 찾게 된 과정을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튜어트 로빈슨(이하 가명) 선교사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카페에 ‘주일은 쉽다(Closed on the Lord’s day)’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인 카페 부부를 만났다. 로빈슨 선교사는 이들과 대화를 나눈 후 1년간 새로운 교회 공간을 구해온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았다.

밴티스트프레스는 한국에서 새로 개척한 교회가 예배를 위한 단독 공간을 갖기 힘든 현지 상황을 소개했으며, 사비비종교 단체들로 인해 아파트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한 고층 아파트 주거비용이 높은 한국은 이웃과의 소음 문제로 인해 아파트에서는 조용한 소그룹 모임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로빈슨 선교사는 몇 주 후, 다시 카페를 찾아가 부부에게 카페를 주일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빌려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선교사 아내가 매주 주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자, 이미 그 필요를 알고 있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카페 주인 부부는 선교사에게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인 로빈슨 선교사(우)와 모리스 선교사 부부 ©유튜브 캡처

10월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공간을 활용하라는 부르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주인 부부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기회를 주실지 몰랐지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왔다고 밝혔다. 부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카페 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까지 거절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다”고 간증했다.

밴티스트프레스는 카페는 현재 선교사 부부의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

다고 전하며 “한 부부가 자신의 자원을 충실히 아낌없이 제공하려는 순전한 선택이 한국에 하나님 교회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밴티스트프레스는 마지막으로 선교사의 아내인 모리스의 간증을 소개했다. 그녀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토록 뚜렷하게 본 것에 놀랍다”며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시련보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계신다”고 고백했다.

유진 김 기자

예장 합동, 9월 21~22일 제105회 정기총회 예정

소강석 목사 “1박2일 총회, 남은 안건은 투명하게 처리”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중준 목사)가 오는 9월 21~22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세움’이라는 주제로 제10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합동 측은 지금까지 4박5일 동안 총회를 가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박2일로 단축했다. 지난 제103회 총회 당시 2박3일 동안 총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차를 적은 없었다.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오인호 목사, 이하 총준위)는 이번 총회 주제인 ‘세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세우고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 교단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 나가는 취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총회 회무는 첫날 전자 투표 방식의 임원 선거를 시작으로 핵심 안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각종 보고는 가능한 문서로 대신해 진행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그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파회 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다룬다는 계획.

또한 총준위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박2일로 총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 총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는 제105회 정기총회와 관련,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 파회 후에도 합리적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회장으로 이번 총회를 통해 무난히 총회장에 추대될 것으로 보이는 소목사는 지난 23일 오후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오인호 목사) 주최로 열린 서북지역 리더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짧은 총회 일정으로 인해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임원회에 수임할 것인데, (임원회가)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증경총회장 등에 게 자문을 구하고, 무엇보다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리적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소목사는 또 △미래전략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총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조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단교류협력위원회를 재신설해 교단 연합과 대사회적 리더십 제고를 모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결국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 일에 있어 우리 교단도 신학적 순수성은 지키되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연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합기관도 하나 되어서 하나의 리더십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 전 드린 예배에 선 김보석 목사의 사회로 권순웅 목사가 대표기도 했고, 김철중 목사가 설교했다. 축도는 이은철 목사가 맡았다.

김진영 기자

Shinhan Card Deep Once

디지털 구독, 렌탈, 생활월납

몰아주고

최대 월 7만1천 포인트

몰아받자

디지털 구독, 렌탈, 생활월납 '한 번만' 자동이체로 등록하면 최대 월 7만1천 포인트 적립

신한카드 Deep Once

※ 신용카드 납입은 가계경제에 위함입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이자율: 화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연 24%(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가계 발생 시점의 최초 2개월(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가계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연회비: 국내전통 2만원 MASTER 2023년전 ※계좌이체 전 잔액상환 및 적립 한도 등 관련 내용은 상환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발주 시 (2020.1.30) 이후 3년 이상 연속 결제없이 유지됩니다. ※ 세부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및 고객센터 (1544-7000) 문의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128-04564호(2020.05.25)

Lead by 신한카드

“교회 예배 회복, 복음의 자신감 회복이 선교와 동원의 회복 이뤄”

2020 한국선교KMQ 포럼 ‘선교와 동원’ 주제로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흐름 앞에서 한국선교와 동원방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0 한국선교KMQ 포럼이 최근 여의도 컨벤션호텔 15층 센트럴파크에서 열렸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 한국선교KMQ가 주관하고 온누리교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선교와 동원’을 주제로 총 3개 세션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KMQ 편집인 성남용 목사(삼광교회, 총신대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교회 예배 회복이 선교의 회복이고, 복음의 자신감 회복이 바로 선교의 회복”이라며 “동원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복음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도 예수만이 길이라는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에서 다음세대 선교 동원도 중요하나, 이보다 10배 더 중요한 선교 동원의 수원지는 선교지”라며 “이를 위해 선교사와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연합해야 하고, 선교지역과 선교 행정을 분업화, 전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는 김중구 빌리온선교회 대표의 사회로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본부장 김홍주 목사의 설교, 나성균 KWMA

운영이사의 축도로 드러졌다. 김홍주 목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선교활동이 멈춰 있다. 선교사들 중 많은 분이 귀국하고, 현지에 남아 있더라도 활동을 멈추고 집에만 머무르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약간의 긴급구호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저희 교회도 해마다 3천5백여 명의 성도님이 해외 단기선교, 5천~6천 명의 성도님이 국내 단기선교를 나갔는데 올해는 국내 해외 일괄적인 전면 중단했다. 내년에도 해외로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을지 가늠이 없는 상태”라며 “이때 우리는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상 멈추지 못한 것을 멈추면서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갈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멈추지 않고 일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성찰하고 한국교회 동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김연수 스토리텔링



2020 한국선교KMQ 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한국선교KMQ

사역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김마가 GO선교회 본부장이 ‘한국의 선교운동’, 이대행 선교한국 상임위원장이 ‘청년 선교 동원, 선교한국 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김아영 핏볼트리니티 교수(한국이슬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엄상섭 JDM 한국대표가 ‘대학생선교단체의 해외선교동원, JDM을 중심으로’, 서근석 고신 훈련국장이 ‘교단 선교부의 동원, 고신 교단 안에 차세대 선교 동원’, 소영섭 바울선교회 연구소장이 ‘청년 동원을 위한 선교 단체의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III에서는 송동호

나우미션 대표의 사회로 서동찬 한반도 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선교 동원의 구조와 전략’, 전은표 카이로스 동원전략디렉터가 ‘선교, 동원에서 동행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강승삼 KMQ 명예이사장의 사회로 질의응답, 조용중 KWMA 사무총장의 총평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단체와 교회의 역할 재고, 작은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사 파송 방안, 미디어 선교를 위한 연합 콘텐츠 구성, 변화된 선교 현장에 적합한 사역자 연결 및 지원

방안, 은퇴 후 시니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선교 동원 등을 제안했다.

또 10~20년 후 선교 헌신자 양성을 위해 지금의 성경지식 전달 위주의 주일학교 공과를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지시키는 내용으로 바꾸는 방안, 목회자 선교교실 운영, 한국선교 구조 재편, 성경적 선교신학 커리큘럼 확대, 타겟2030에 대한 추가 논의 등 거시적 방안과 미시적 방안, 장기적 방안과 단기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비교적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일로 주일학교 공과 개편, 선교장학금 제도를 통해 어릴 때부터 다음세대가 선교에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과 목회자들의 선교 인식을 깨우기 위한 목회자 선교교실 운영이 언급됐다. 장기적 방안으로 신학교육에서 선교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2006년 시작된 타겟2030 운동의 역사 계승을 하는 뜻에서 문자적 수정보다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역사는 단절되는 것보다 계승이 좋다. 코로나19시대에 우리의 선교운동에서 좋았던 부분을 되새기고, 우리의 단점으로 생각한 부분은 철저히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동원의 의미가 선교사 파송 숫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성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너무 숫자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 선교 동원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한국선교KMQ 포럼에서는 ‘선교와 세속화’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FIM국제선교회 이슬람선교학교 성황리 마쳐

이슬람 선교 준비하는
15명 수료생 배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림동 FIM선교센터에서 열린 FIM국제선교회(이사장 천환, 대표 유해석)의 이슬람선교학교 인턴십 과정이 은혜 가운데 마쳤다.

총신대선교대학원 김성욱 교수,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박사, 칼빈대학교 강사 장미숙 박사, 마르투스 출판사 대표 이동훈 목사 등 4명의 강사가 나서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무함마드의 생애와 이슬람의 시작, 이슬람 교리,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이슬람권에 부는 새바람, 이슬람과 종교개혁자들, 이슬람과 비즈니스선교, 이슬람과 여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공개 프로그램 외에도 이집트, 방글라



FIM 이슬람선교학교 인턴십 수료생과 강사 단체사진. ©FIM국제선교회

데시, 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FIM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소개와 간증은 수강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박규화 전도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주님의 하트(심장)를 이식받고 싶다는 것이었다”며 “세미나 3일 동안 선교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였고, 3일 내내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참 많이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수료자는 “이번 선교학교를 통하여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세미나 강사 및 FIM국제선교회 모든 선교사님 안에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서 좋았다”고 말했다.

FIM국제선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는 15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했다”며 “정부 방역방점을 철저히 지키며 평소보다 축소된 훈련을 진행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FIM이슬람선교학교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슬람권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들에게 유용한 훈련과정이다. 특별히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는 훈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지희 기자

선교편지 COVID-19로 달라진 싱가포르와 태국 선교 변화

COVID-19 팬데믹 이후 온 세상이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창이공항 제 2터미널을 1년 반 동안 문을 닫기로 하였고, 의료, 행정, 교통, 호객(식당) 등 기본적인 직종을 제외하고 모든 직장이 재택근무로 들어갔습니다. 다수의 실직자가 나오자 싱가포르 정부는 팬데믹 이후에 필요한 직업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회들은 회집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신포리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인 남자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가족사에 갇혀 지내며 빠르게 번지는 COVID-19에 감염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포리교회의 자비사역팀은 때를 따라 태국 형제들을 방문하고 음식과 필요한 약품을 전달하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

니다. 아내 이명국 선교사는 지난 2월에 태국을 방문하여 칸깬에서 머물며 사역하던 중 갑작스러운 COVID-19 상황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이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현재 6개월째 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영상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성도들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태국의 짜마키, 차이쁘라셋, 우텐 성도들이 연결되었고, 미국의 우타이 성도, 영국의 미야오 성도, 이탈리아의 민 성도, 독일의 라인하트 박사 등이 연락되어 함께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지나가면 교회와 선교의 모습은 이전과는 매우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 예상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에 익숙해져서 계속 온라인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배 출석과 아

울러 헌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교회 경성비와 선교비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선교지의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도제목

- 주님께서 각 선교지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도록
- 싱가포르 신포리교회의 남자 노동자 성도들과 국제결혼 한 여성도들이 영상예배를 통해 믿음이 잘 자라가도록
- 싱가포르인 성도들이 예배 영상 편집, 통역과 음식물 전달 등으로 헌신하는데 주님께서 자키시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 태국 귀국한 성도와 해외에 흩어진 태국인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김재배, 이명국 선교사

OPEN EVENT

라파로페가 홈페이지 리뉴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적립금과 선물 받아보세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보러가기▼

www.rafarophesoap.com
(라파로페 리뉴얼 쇼핑몰)

01

회원가입시
10,000원 적립금 지급

02

첫구매시 선물 증정!



Soil Deo Gloria
Rafa Rophe

전화번호 043-900-0367 / 010-7767-0388 / 010-6410-0377

본사 및 연구소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벤처연구센터 기업연구관 2동 605호/408호

제조공장 | (281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충청대학 R동 117호

무슬림 지도자 “성소피아 모스크 전환 계획 재고해달라”

무슬림 지도자들이 터키의 성소피아(Hagia Sophia) 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는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성당은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면서 건립되었으며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기 전까지 성소피아 대성당은 약 1천년 간 동방정교회의 본산이었다. 1934년 이래 강력한 세속주의 아래 성소피아는 박물관으로 전환됐고 이제는 다시 모스크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인간의 형제애 고등위원회(HCHF)’ 사무총장인 모하메드 압델 살람(Mohamed Abdel Salam) 판사는 “성소피아 성당을 둘러싼 모든 결정은 분열이 되는 원인을 피해야 하며, 모든 종교 간

상호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텔 살람 판사는 최근 세계교회협의회(WCC) 임시총무인 요한 사우카(Joan Sauca) 박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HCHF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 간 대화와 문화 간 의사소통을 훼손하고 긴장과 증오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도록 요청한다”면서 “다른 종교를 추종하더라도 공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전 인류의 필요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HCHF는 예배 장소가 신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리와 차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우카 박사는 이달 초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카 박사는 “성소피아를 회교 사원

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터키의 개방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뒤집어 배제와 분열의 신호로 바꾸었다”면서 “성소피아 성당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박물관에서 회교 사원으로 개조하기로 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의혹, 불신을 야기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을 한데 모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네바에 소재한 무슬림 재단 앙뜨레

코네상스(de l' Entre-Connnaissance)의 하피드 파디리 디렉터 또한 사우카 박사의 지적에 “완전한 지지”를 표한다는 서한을 WCC에 보냈다.

그는 “전 세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무슬림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터키의 아아 소피아(Hagia Sofia)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지난 1934년 이후 지속해온 것처럼 항상 인류의 지식, 빛, 지혜, 평화의 교차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美, 中해커 2명 기소… “가정교회 목사 이메일도 해킹”

코로나19 백신 연구와 관련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당한 중국인 해커 2명이 과거 가정교회 목회자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고 공산당 관리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케리 쿠팍 법무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두 명의 중국 해커들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들을 중국 정부국에 넘겼다고 보고했다.

케리 쿠팍 대변인은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기독교 가정교회를 폐쇄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두 명의 해커는 해당 목회자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이메일을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그 목사를 체포했다”면서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미 법무부는 10년이 넘는 대



중국인 해커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케리 쿠팍 법무부 대변인. ©폭스뉴스 영상 캡처

규모 글로벌 해킹 작전에 참여한 중국인 두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주로 첨단기술, 제약,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으며 미국, 중국, 홍콩 등지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목회자,

인권활동가 등의 데이터를 중국 국가안전부(MSS)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국가안전부에 홍콩 시민사회 활동가, 시안 기독교 교회 목사, 전 천안문 광장 시위자, 반

체제 인사들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겼다. 이들은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의 이메일도 해킹했는데 이메일 소유자인 목사는 곧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 용의자들은 또 홍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한 미국인 교수와 시민운동가, 캐나다인 2명의 이메일 계정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지금까지 빼돌린 기업정보의 가치는 수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첨단 기술 회사에서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훔쳤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12개가 넘는 미국의 바이오메디칼 리서치 회사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았다. 두 사람은 최근 백신 치료와 테스트 기술 연구로 잘 알려진 생명공학 기업의 네트워크 취약점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은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코로나19 재건에 여성 참여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코로나 재건’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며 ‘코비드-19와 여성 인권’을 주제로 지난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패널 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토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가 격리와 학교 폐쇄, 이동 제한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들이 성에 기반한

폭력의 급격한 증가에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과부하 상태인 보건체계, 자원의 재분배, 의료공급 부족, 세계 공급망 붕괴가 출산과 질병 관련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VOA는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폐기 히스 국장은 코로나 국면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본질적인 취약성 때문이 아닌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팬데믹 내의 팬데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여성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지만 이

들의 경제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의료 종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생산과 공급망, 청소와 세탁, 돌봄 업무 등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여성이 저임금과 비정규직,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인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숙박, 제조, 소매, 오락 등 코로나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종사한다”면서 “임금 격차와 가사노동 불균형 등 기존의 성별 간 불평등으로 인해 코로나 국면은 물론 이후에도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VOA는 전했다.

한편 토마스 오해아 쿼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코로나로 인한 북한 내 인권 악화와 우려와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에서 여성은 인구의 51.1%를 차지하지만 고위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면서 “북한에서 여성은 교육이나 구직에서 차별을 당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 착취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에콰도르 빈곤계층에게 원격진료는 생명줄 같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350만명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 방문은 원하지 않는 위험요소가 되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병원 방문을 결정하더라도 수도인 키토(Quito)와 에콰도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야킬(Guayaquil)에 소재한 공립 병원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도시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 사회 병원에는 소수의 병상만 설치됐으며 엑스레이 시설조차 없다고 한다.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접근하는 것조차 보트를 타고 이틀간 여행을 해야 가능한 사람들도 있다. 빈곤 계층의 경우 병원에 갈 재정과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이때는 보도했다.

기독교 아동 후원 단체인 캠페인 에콰도르는 후원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근 캠페인에서 출시한 새로운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은 병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중요한 생명줄과 같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캠페인의 어린이 후원자였던 한 의사의 자발적인 작업으로 시작됐다.

캠페인 에콰도르 식스토 감보아 국장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훌륭한 의사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가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의사이자 전 캠페인 후원자였던 이네스(Inés)는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우



전화로 의료상담을 하고 있는 닥터 이네스. ©캠페인 에콰도르

리가 서로를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와 가정에 축복이 되어야 할 때”라고 했다.

캠페인에 따르면 3백여 가정이 의료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이비아(Ivia)는 두 살 된 아들 칼럼이 열이 나고 구토를 시작했을 때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이비아는 캠페인 교회 협력자에게 핫라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비아는 “집 근처에 의사가 없어서 두려했지만 의료진에 전화를 했을 때 약을 처방해줬다. 짧은 시간에 아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마리아의 아들 엘리아스(Elias)는 인후통과 기침 증상을 보여 핫라인으로 의사에 연락했을 때 심각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처방을 받고 아들의 증상은 호전됐다. 마리아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캠페인 에콰도르 측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어린이를 위해 의료진 숫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12년만에 첫 공급!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대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 특별분양



2020년 6월17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5%인하 하면서 부동산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들면서 매매가격이 급상승해 정부에서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도심권 오피스텔은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입지가 탁월한 “종로루비온 오피스텔”은 반경 300m내에 지하철1, 2, 3, 5호선 이용 가능하다. Quadruple(쿼드러플) 역세권에 위치한 당 현장은 “지상 14층 규모” 단일타입 총 181실의 오피스텔과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이뤄져 있다. 주변 세운6구역, 세운3구역, 세운5구역이 개발을 시작했다.

1차 분양완료



※ 분양 타워는 30여미터 아래를 통과 한 전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현장의 경우 세운4구역, 세운2구역,을 도로하나 사이로 두고있어 세운지구재개발 수혜지로 가치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주변에는 대기업, 제약회사, 관공서, 외국계금융회사, 패션종사자, 서울대학병원 등 임대수요가 365일 대기하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임대1순위 지역으로 공실걱정이 없다. 이러한 연유로 365일 매일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고, 광장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보석상가 등의 편의시설이 산재해 있는 등 인근에 약 17만 명의 엄청난 배후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택담보대출은 3억이상의 주택을 구입시 대출이 불가하다. 그래서 자금부담 없이 투자할수 있는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수 있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종로, 을지로 일대 오피스텔은 임대료가 보증금1천 ~ 5천만원 / 월세80~180만원대로 전용면적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주목할점은 공실이 없고 대기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당 현장은 종로, 을지로, 세운재개발지구 등에 분양하는 일대 오피스텔 중 분양금액이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다. 세운재개발지구가 완료될시 최첨단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대기업 및 외국계회사등이 이전계획을 확정하였고 관련회사들도 줄줄이 이전될것으로 보이고 관련직원만 5만명이 상주하게 된다.

입주는 2021년 10월 예정으로 현장공사가 진행중이고 계약금 10%, 중도금 60%무이자, 잔금 30%,이다. 입주까지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잔금대출시 60~70%까지 가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한다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조기마감이 예상되므로 사전문의가 꼭 필요하다.

6·17 부동산대책 제외
1가구 2주택 제외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
직접 수혜지

서울대병원, 창경궁, 종묘공원 앞
지하철 1, 2, 3, 5호선

대기업, 제약사, 금융사, 대학병원,
공무원 등 풍부한 임대수요

문의
1811-7703

美대선후보 조 바이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더 가르쳐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 100일을 남겨놓고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사진) 간의 대선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슬람 단체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학교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하며,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 무슬림권리운동 시민단체 ‘엔게이지 액션’(Engage Action)이 주최한 원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



슬림계 미국인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백만 무슬림 투표운동’이란 타이틀

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무슬림 유권자의 표를 집결하고자 마련됐다. 바이든은 “학교에서 이슬람 신앙에 대해 더 가르치길 원한다”며 “이슬람은 위대한 고백 신앙 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기초 신념들(beliefs)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말

이다. 오는 11월에 (당신들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 약속을 쥐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공립고등학교 수업에 이슬람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경우 중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바이든의 발언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은 ‘당선되는 첫날 즉시’ 특정 이슬람 국가들의 여행객들을 입국 금지 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vile)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7년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막고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의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무슬림계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 지역 사회나 미국 전체를 위해 소중하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는 제대로 인정받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포비

아이슬람 공포증)를 지닌 사람들을 국방부와 국제개발처의 핵심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비판하며 “이는 우리가 지닌 가치에 대한 모독이며, 전 세계 내에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과연 다른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에 관해선 바이든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적했다.

이날 엔게이지 액션 측은 “미국 내 주요 접전지역 주마다 무슬림 유권자들의 표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출직 고위직에 진출한 무슬림계 정치

인들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무슬림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지지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종교(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무엇보다 (교회 관련해) 명령하지 않고, 과격한 좌파 진영에 연락할 것”이라며 더 자세히 말해달라는 앵커의 주문에 “지금 그들이 교회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ix Feet Apart)를 원한다면 교회조차 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혜 기자

동남아 기독교인들 정부 긴급 원조 명단서 제외… 생활고 극심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여파로 동남아시아와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당국의 명령에 따라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긴급 원조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 수단, 말레이시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오픈도어 인터내셔널의 아시아 담당이사인 얀 베르메르(Jan Vermeer)는 프리미어 뉴스를 통해 “지역사회가 그들의 원래 종교로 되돌아올 경우에만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제보들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현지 상황에 대해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로 되돌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살까지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오픈도어 동남아시아 부서의 샘(Sam)

목사는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의 경우, 지방 정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특별히 이슬람교나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샘 목사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단이 없으면 죽거나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도 있다”면서 “이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오픈도어의 지원이 없었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양 실조나 기아로 사망하거나 예수를 따르는 것을 너무나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수단에서도 코로나 봉쇄 조치 기간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거부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굶주림과 노숙 생활에 직면하게 된다. 수단의 한 지역 목회자의 제보에 따르면,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들은 신앙 문제로 가족이나 부족, 지역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며 전적으로

자립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봉쇄 조치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신세에 처해 있다. 그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이슬람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이슬람 공동체)는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리케이드”고 말했다.

동말레이시아에서도 한 기독교인 학생 그룹이 지역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봉쇄 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식량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오픈도어는 설명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107명의 기독교인 가족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거부하며 “나는 기독교인이고 네 하나님은 너희 가족을 돌보아 줄 것이다. 정부는 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픈도어에서 식량지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오픈도어

인도계 미국인 기독교단체 연합회 존 프라브후도스(John Prabhudoss) 의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에 인도의 종교적 소수민족이 학대를 당했다는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이번 위기 때 국민을 돕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 김 기자

이란 정부, 성공회 목사에게 ‘국가적대단체’ 이유로 징역 선고

이란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 목사가 ‘시온주의 복음주의 단체의 일원’이란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영국 런던 소재 이란 인권감시단체와 기독교인 종교자유 감시 단체인 아티클18에 따르면, 이란계 기독교 개종자인 이스마일 마그레비네자드(Ismael Maghrebinejad) 목사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다.

감시단체에 따르면 마그레비네자드 목사는 올해 초에 선고받은 징역 3건 중 1건인 ‘이슬람교에 대한 신성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9일 항소심에서 무혐의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를 전인 22일 추가로 받은 ‘국가내란선동’과 ‘정권 적대 단체 소속’ 혐의에 대한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가 징역2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체는 언급했다.

아티클18 변호이사 만수르 불지(Mansour Borji)는 지난주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영국 성공회 목사를 국가에 적대적인 단체 소속으로 고발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불지는 “이란혁명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활동으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전반적인 꼬리표(planet labeling)’를 부정확하게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티클 18이 밝힌 법원 문서에는 ‘복음주의적 시온주의’라는 기독교적 견해를 가진 집단을 적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이란 법원이 항소 전보다 가혹한 형을 선고한 이유로 단지 그가 필리핀 사람들의 책에 나온 성경 구절이 위성TV 채널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마그레비네자드 목사의 딸 마하사는 앞서 아티클18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버지가 건강이 나쁜 동생의 유일한 간병인이기에 그의 수감 생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하사는 “아버지가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도대체 어떤 정책이나 법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란 당국은 이달 초에만 3개 도시에서 최소 12명의 이란계 기독교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특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란은 오픈도어 USA가 꼽은 기독교 박해국 9위에 해당되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유진 김 기자

“산소 호흡기 대신 마스크 착용을”

텍사스 메가처치 목회자,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메가처치 ‘포터하우스(The Potter's House)’의 설립자인 T.D. 제이크스(T.D. Jakes) 목사(사진)가 지난주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허버트 헨더슨 소수민족 사무소가 페



이스북에 올린 그의 비디오 메시지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이크스 목사는 비디오 영상을 통해 “산소 호흡기를 쓰는 것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쉽다”며 “여러분은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검사를 수 없이 받아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심지어 당신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라. 그들이 너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라”고 강조했다.

제이크스 목사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비판해 왔다. 지난 5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긴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성경적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언급하며 “사탄은 (예수께)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산에서 뛰어 내

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라 했다”며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를 붙드는지 보려고 산 위에서 몸을 던지지는 않으셨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형교회 노스포인트 커뮤니티교회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자 스튜어트 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튜어트 홀은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는 행태에 대해 “이것은 의료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한 행동이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유진 김 기자

광동 홍미스
CHOI'S PREMIUM

**침향도 광동이 만들면 다릅니다
광동 침향환으로 깨어나십시오!**

광동제약이 까다롭게 고른 귀한 침향에 건강영양을 녹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료 13종까지!
광동 침향환, 이 한 알에 다 들어있습니다

2+1

광동 침향환 沈香丸
신약만 원형에 정통 녹용의 품격을 더했다

광동제약(주)

沈香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배우 김영철

- 녹용과 침향을 최대로 넣은 침향 대표 제품입니다. (자사 제품 기준)
- 57년 역사의 광동제약은 신뢰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국산산 원료(침향/녹용 제외) 하나하나 간간하게 정성껏 관리합니다.
- 전통 소재 개발에 힘쓴 광동제약의 노하우로 원료 하나하나 직접 선택, 개발하였습니다.
- 영양공급, 건강증진, 체질개선, 활력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환입니다.

| 무료상담 |
1899-1260

미·중 갈등 격화에 韓 외교 중대 기로… “전략적 모호성 한계”

전문가들 “현안별 공론화 통해 조속히 원칙 확립을”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폭 잡어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변형네트워크(EPN),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과 파장을 점검한 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반격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던 모습. 더 격해지고 있는 미·중갈등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문제는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탈(脫) 중국 경제 동맹인 경제변형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스톰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 미 포린프레스클럽(FPC)이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보이콧 동맹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경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해온 호주에

육류 수입 일부를 중단한 데 이어 호주산(産) 보라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바이라izon과 시스템, HP 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5G 특허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양자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을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에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낭설과 사실 진상’이라는 입장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미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 압박이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도 시험대에 놓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강 장관 주재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 함께 미·중 갈등 상황에서 종합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를 꾀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쳐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현안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경제와 군사·안보적 인 영역 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제 우위론까지 확대됐다”며 “지난 5월 백악관에서 대중국 접근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후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해 호칭하는 등 본격적인 이념 경쟁

까지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현안이라면 조속히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친 원칙을 확립하고 대마대 중 외교,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근 한동대 교수 역시 “그 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를 각오도 해야 한다”며 “다자가 움직일 때 빨리 목소리를 내야 한국에만 보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경제변형네트워크, 화웨이 사용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작하고 공론화를 거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해야 미·중이 쉽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기자

“한동훈 수사하지 말라”… 검·언유착 수사팀 어찌나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심의한 외부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향후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론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양새다.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번 결론에 비춰보면 수사팀은 그간 공개한 부산 대화 녹취록과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외에 한 검사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이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이같은 항변으로 설득했고, 결국 현안위원들이 한 검사장의 항변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론에 따라 이전 기자 구속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 개입 여부를 따져보려던 수사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라는 연결 고리를 끊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뒤따르고 있던 모습. ©뉴시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본 구성은 이전 기자가 검사를 팔았다는 것이고, 한 검사장이 공모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에 법무부장관 등은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서로 모의를 해서 실행 행위자로 이전 기자가 나섰다”고 본 것인데, 수사심의위는 녹취록 등을 볼 때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사팀은 이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 계속와 공소 제기 의견이 다수 나온 만큼, 이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릴 만큼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법원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독립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국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것은 이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심의위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불복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할 경우 비판 여론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성구 기자

NCCK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민(民)의 평화협정’ 선언문 발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가 24일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 취지에 대해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전체제, 분단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며 한반도 주민들은 불신과 증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다”며 “해소되지 않은 냉전체제 아래 전쟁의 위협과 폭력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동북아시아는 무기경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는 북의 핵무기 개발로까지 이어졌다. 한반도의 불안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이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화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제2조 13항)을 언급하며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은 정전 70년이 지난 이 시

점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NCCK는 “안전한 삶의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주민과 세계시민의 의지를 모아 ‘민(民)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이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토대로 향후 국내외 종교시민사회는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이 전 온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설화수 피부 과학의 결정체 자음엑티베이터™

더 강력해진 자음엑티베이터™는 피부 노화를 총괄하는 스킨 마스터 팩터(Skin Master Factor)를 통해 피부 노화의 생태계를 강화해 **피부 건강 지수*를 146% 개선**합니다. 이것이 설화수만의 유스마스터테크놀로지입니다.

*피부 건강 지수(Skin Youth Index): 설화수의 피부 개선 효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피부노화 6가지 지표(수분함/광기/탄력/주름/자외선/피부장벽)의 10일 인트라피어싱 지수(인체 적용 시험 결과 표준화)를 계산한 피부노화 지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CCM 인터뷰] '주의 은혜가 족하다' 발매한 오세광 목사

주의 말씀 불붙게 하소서
주 은혜로 불붙던 한 사람
심자가를 지고 가겠으니
주여 나를 불드소서
주의 말씀 불붙게 하소서
주 은혜로 불붙던 한 사람
심자가를 지고 가겠으니
주여 나를 불드소서
주의 은혜가 족하다
- 가사 중 -

“말씀대로 찬양”이라는 타이틀로 매달 하나의 찬양을 발표하고 있는 오세광 목사가 말씀대로 찬양 5 '주의 은혜가 족하다'를 최근 발매했다. 목سال수록 깊은 은혜를 주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보다 인상적이다. 어려움이 점점 커져만 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찬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광 목사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 안녕하세요. 잘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잘지내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예배 등 함께 모이는 상황이 어려워지다보니 혼자 보내야 하거나 혹은 가족들과만 보내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때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난 잘 보내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번 싱글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싱글의 노래의 제목이 '주의 은혜가 족하다'인데요. 사실 족한 줄 아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십사 간구하는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니까요.

바울의 유명한 일화 중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구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구했다는 것은 분명 육체의 가시는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구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으니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였다는 거죠.

저의 삶이 이정도인것, 제 사역이 이정도인것, 제 능력이 이정도인것, 내 재정상태가 이정도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들 좀 정리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만약 '내 은혜가 네게 족해!' 라고 하신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참 많이 씨름한 것 같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가 아니라,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다. 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믿어지고 확인이 되 어지면 나의 약함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나의 약함 가운데 거하시야 한다는 원리에 동의가 내려지면, 오히려 나는 강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를 해결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약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깨달아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삶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찬양의 가사와 말씀이 각자의 삶에 분명 달아 있을 것이고, 닳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듣는 이들도 많이 울었구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은 억울함의 울음 아니라, 나처럼 약한 자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지요.”

- 벨트워십 사역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모든 분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늘 상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이 딱히 더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웃음).

어려움에도 종류가 각각 다르겠지만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힘든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광야의 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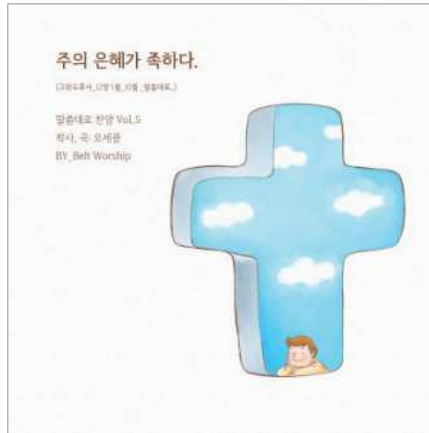


오세광 목사

제가 충분히 보냈고, 지금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기도 부탁 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펼치고 있는 '말씀대로 찬양' 사역이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말씀대로 찬양 형식의 새로운 찬양곡들이 많이 불려지기 위해서 음원 작업이나 유튜브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에는 재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역교회에 거점을 두고 사역을



오세광 목사가 말씀대로 찬양 5 '주의 은혜가 족하다'를 지난 16일 발매했다. ©오세광 목사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정이나 인력, 혹은 새로운 사역의 바람을 일으키는데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지역교회들이 저희와 같은 전문 사역자나 팀들을 믿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 문화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말씀대로 찬양'이라는 형태의 찬양곡, 즉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각 책과 장의 주제와 해석을 정확히 이해해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찬양곡들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각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 하시듯이 저 또

한 찬양 사역자로서 성경의 각 책과 장별로 그 주제와 말씀에 맞는 찬양곡을 작곡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했구요. 저희 벨트워십 유튜브 채널에 매주 한곡씩 업로드를 하는 중입니다.”

- 추천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사역자 유봉기 목사의 싱글 음원 '고운가루'라는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고백 또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라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유목사의 독특한 시적인 고백으로 풀어낸 서정적인 찬양이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정식으로 제작하신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더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 찬양 사역자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간다면 그것이 저희의 상급이 됩니다.

저의 곡이든 아니면 다른 찬양 사역자들의 곡이든,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회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좋은 팔로워들이 있다면, 좋은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격려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민수 기자

위기 목회자가정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

밀알복지재단, 코로나19로 이중고 겪는 목회자 돕고자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중고를 겪는 목회자 가정을 돕는 '목회자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은 “A선교사 셋째 딸 주은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올해로 스물 넷,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지만 장애가 있는 주은씨에게 독립은 꿈처럼 먼 이야기다. 언니와 오빠는 독립해 선교지를 떠났지만, 주은씨는 가족들과 선교지인 C국에서 지금껏 함께 살아왔다”며 “그러던 중 작년 말 당국으로부터 기독교 선교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선교사 가정은 또 다른 혐자인 T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전의 사역지보다 더욱 척박한 환경인데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주은씨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스물이 훌쩍 넘은 딸의 먼 미래와 행복을 위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 간 선교지에서 헌신해온 A선교사 가정이 주은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주은씨가 한국에서 살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현실은 비좁은 단칸방의 월세조차 감당할 형편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중, 동료들의 도움으로 A선교사 가정은 밀알복지재단을 만나게 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주은씨는 밀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주은씨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세운 후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한 것은 물론 주-야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주은씨에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A선교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하라하시어 건강한 기독교사회 복지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주은이가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밀알복지재단 목회자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으로 도움받은 A선교사 가정. @밀알복지재단

시작하게 됐다”며 “주은이를 한국에 두고 떠나며 무거운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미자립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자녀의 장애로 기존에도 의료비 등 돌봄 부담을 겪었던 목회자 가정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회는 물론이고 가정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가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에 이를 때까지 캠페인을 이어가며 목회자 가정의 장애 자녀들을 도움 예정이다. 재단은 캠페인에 동참할 교회를 모집하는 한편,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목회자 가정의 장애자녀도 찾고 있다. 관련 문의는 밀알복지재단 미션사업부(070-7462-9087)를 통해 가능하다.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높은뜻광성교회, 분당중앙교회, 산위예교회, 새영교회, 세대로교회, 서울반석교회, 성문교회, 신도봉교회, 신태인교회, 수영로교회, 우리는교회, 의왕우리교회, 오계이교회, 오룡교회, 주안장로교회, 죽전우리교회, 한우리교회, 혜성교회가 참여했으며, 밀알복지재단은 모아진 후원금으로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 7곳, 선교사 가정 2곳, 부교역자 가정 11곳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전달

한 상황이다.

밀알복지재단 유권신 미션사업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가정이었다면 장애자녀를 둔 가정이 아닐까 싶다. 어려운 중에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작은 나눔이 모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해당 캠페인에 동참한 주중중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교회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회자 가정 장애자녀 긴급지원’ 캠페인을 실시한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 장애아동의 의료복지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49개 운영시설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14개국에서도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조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KB금융그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늘은 맑고
혜택은 많다

중이 통장 만들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최고 연 2.35%의 금리와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하세요
KB맑은하늘적금

▶ 최고 연 2.35%
2020.05.12 기준, 예입 30만 원, 위약금 연 1.0%p 적용

▶ 환경 미션 달성 시
최고 연 1.0%p
우대금리 제공

중이 통장
만들지 않기
[연 0.1%p]

중이 서식
사용하지 않기
[연 0.2%p]

대중교통
이용하기
[최고 연 0.6%p]

환경상식
퀴즈 풀기
[연 0.1%p]

▶ 대중교통 / 자전거
상해관련 무료보험 제공
[최대 2억원 보장]

[KB맑은하늘적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 원(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서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및 스마트폰 앱(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사인 심의일 개 2020-0848호(2020.05.12), 광고를 유효기간 2020.12.31)

KB 국민은행

이상원 교수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여호와께서 돌아가자,
싸매어 주시고 낮게 하실 것이다

2019년 10월 4일 인간학 강의 시간에 동성애의 위험성을 강요한 이상원 교수를 삼상직으로 남돋하기 어려운 37지 정계 사유를 들어 2020년 5월 18일 교수 해

임을 통보하였다. 개혁주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합동교단 노회장들과 많은 동역자들은 총신대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총신대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급기야 해임을 당한 이상원 교수는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2020년 7월 24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해임조치가 일시 정지되었다. 아직 분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복직절차를 따라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총신대 당국자와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합의하

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만저,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와 땀별의 여름까지 총신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총신대를 위해 드린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총신대에 바라기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을 총신대 당국자들이 조건 없이 수용하고 화합과 학교가 재도약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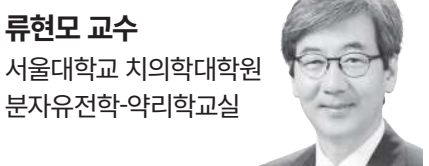
이상원 교수 징계에 항의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이번 결정을 통해 총신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길 기도한다. 총신대는 지난 수 년 간 많은 환란과 시련을 겪어 왔다. 개혁주의 신학교인 총신대가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싸매어주시고 낮게 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한 감정이 말쑥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녹아지고 용서와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낚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라(호 6:1-3)

총신대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번 기회로 총신대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 위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상한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깊은 상처들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화목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 놓는 신앙인들이 배출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가?



류현호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본자유전학-약리학교실

◆거짓을 통해 인정받은 동성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알프레드 킨제이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남성의 성적행동”을, 곧 이어서 1953년 “여성의 성적행동”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킨제이는 남성의 13%, 여성의 7%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 주디스 라이스만이 “킨제이의 성과 사가 사람들을 세뇌시키다”라는 책으로 킨제이의 의도적 조작을 알릴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킨제이의 주장은 잘못된 성 지식의 근거가 되었다.

라이스만의 저서를 통해 킨제이 자신이 다양한 도착적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성에 대한 모든 사회제약을 깨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자기가 조사한 표본에 남성매춘부, 소아애호자,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 성도착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을 전체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도록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인의 10%가 동성애자라는 통계 수치를 만들어 내었다. 이 수치를 근거로 동성애 운동가들은 1970~80년대 미국의 정책을 친 동성애적으로 전환하고 유지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에 킨제이의 자료에 의심을 가지게 된 여러 국가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이

러서야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비율은 유럽과 미주에서 0.8%~1.4%로 양성애자를 포함시켜도 2.4% 이하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경현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도 2% 이하로 추정된다. 물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정책수립의 배경에 거짓된 통계수치와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거짓된 논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 규정하고 돌로 치라고 명한 명백한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실정법상 죄가 아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그들을 비난할 합리적인 윤리적 기준도 없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에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구성과 역할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한다. 부부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배제된 오직 두 사람

만의 배타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명령하신 것이다. 또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기록한다. 이는 영속적 부부관계를 통해 가정에 안정성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결혼을 통해 세상을 채우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

◆동성애자는 행복한가?

동성애 커플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친밀감과 사랑하는 관계를 갈망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성애 관계에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 156쌍의 게이 커플 중 7쌍만이 성적인 정절을 지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성 부부처럼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성적 즐거움을 위해 비인격적인 성관계에 상대방을 이용한다. 그 관계는 점점 강압적이 되고, 과도한 성행위에 몰두하다 보면 1~3년 내에 대부분의 관계가 파탄난다. 때문에 동성애자는 나이가 들면 가족도 없고, 성적인 매력도 없어져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 결과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게이는 알코올 중독이 2배 이상, 자살시도는 3배 이상 많다. AIDS를 비롯한 여러 성병과 암으로 인해 수명이 25~30년 짧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성 전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대 성의 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으면 육체적 성징을 유지할 수 없

다. 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대사질환이 발생한다. 결국 대부분이 4.5대에 이르러 병들고, 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몸과 마음이 남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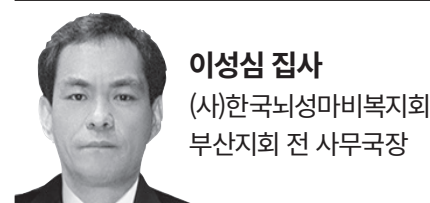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는가?

동성애는 성 중독의 일종이다. 모든 중독에 여러 등급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중독에도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빠져나오기 힘들다. 유전이 아니므로 치료가 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30~80% 정도가 치유된다. 미국에서는 1973년 이전까지 치료를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치료를 하였다. 미국의 NARTH(동성애를 치료해야 한다고 믿는 정신과 의사들의 연합) 회원들은 치료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을 꾸준히 치료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의 문제점

동성애는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순간의 짧고 강렬한 쾌락과 점점 더 강한 것을 반복적으로 찾는 중독 뒤에는 평생에 걸친 길고 긴 고통이 따른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마약, 도박, 알코올 같은 중독행위를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것이다. 성의 결정은 수정의 순간에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것도 같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자녀들이 타락으로 가는 문은 열려있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은 막아버리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힘을 다해 반대하는 이유다.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추진은 성적 의식 없애는 행위



이성심 집사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

이상민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추진 계획은 한마디로 ‘성’ 죄악의 판을 깔아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5선 국회의원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다면 저지시켜야 할 분이 오히려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는 악법도 폐지하고 삭제하자고 해야 할 판국에 결국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국회에서 발의하려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찢는 노릇이다. 오늘날 시대가 과거보다 성생활이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지고 있고, 성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꿈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밋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릇된 성이란 이렇듯 정신세계를 병들게 하고 여러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야 바른 생활로 이끌어가고 사회도 그만큼 밝은 사회가 된다. 비단 기독교인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법을

반대한다.

인간이 ‘성’에 집착하고 성의 노예가 된다면 개인도 나라도 결국 패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악한 범죄가 동성애인데 이를 법으로 허용하는 일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 이 시간에 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과 같은 일을 하길 요청한다. 현 장애인활동보조제도도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넘어간다. 월 120시간을 한 달간 나눠 사용하면 하루 3~4시간밖에 케어를 받지 못하므로, 그 이외의 생활은 올 스톱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중증뇌성마비 장애인이다. 필자가 알고로는 이상민 의원께서 장애인 등급을 받으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TV로 볼 때 휠체어 타시는 것을 보았다.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유익한 발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대면할 수 있으면 이상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상민 의원 자녀들이 동성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섣불리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줄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우리 믿는 1,200만 성도가 이 법만큼은 목숨을 내걸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가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한다면 후세를 위해 이 법만큼은 통과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저지를 해야 한다.

기도만 할 것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500만 형제가 사는 북음의 불모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원손이 모르게~~

전도자를 준비합니다.

오른손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민족복음사관학교

【설립이념】

1. 탈북민과 북한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북한선교전문 지도자 양성
2. 남북통일 이후 북한선교의 중추적 인재 양성

【교육】

1. 사도적 사명감과 자질
2. 교회 실무교육
3. 리더십 훈련

【피교육자】

1. 전 교육과정 장학급
2. 생활비 지급



우리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가치

이효상 목사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정치권은 뭘 하는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우느냐 국민은 무얼 먹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 그렇게 허송세월만 간다. 구태를 털어내고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든든한 대안정당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보수는, 진보가 무능한 아마추어들이라서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반면, 진보는 보수를 전일과 반공의 유산에 물든 구시대의 잔재로 보고 정산돼야 할 적폐세력으로 치부한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민심은 마구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 민심은 무능도 싫어하지만 독선과 오만은 더더욱 싫어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 취급하기가 사람들은 분노한다. 빛은 공짜가 아니다. 정치권은 가계 빛은 적신 호인테도 3차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뱃사라라도 일단 돈 쓰고 보자는데 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민생해결이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누가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쓴 책에서 “국민 모두가 한국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을 결심해야 한다.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상생과 타협의 정치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읽었다. 정치 변혁에 대한 글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대화와 가교도 없이 비판과 공격만 일삼는 양 진영논리에 현실정치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게 됐다.

우리는 흔히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극혐’으로 비판하곤 한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의 경우처럼, 미끄럼전복·화재가 생겼다면 분명 ‘차량결함’이다. 심각한 결함이다. 사람의 운전 문제를 넘어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내가 하면 남보다 잘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린다. 또는 “나까지는 해먹어야 한다”라는 뻔포, “이건 내꺼다”라며 사유화하려는 이런 고집과 사욕이 조직이나 기관을 망친다. 꼭 조직이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사유화를 막고 함께하는 공적영역의 가치와 공적 시스템의 구축은 요원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1인 1표이지만 ‘다수결’이라는 합의가 있다. 선거에서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보다는 ‘이길 후보’를 찍는다. 내 표가 사표(死票)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단 1표만 많아도 다수면 된다는 ‘단순 다수제’방식의 오류다. 51대 49라면 당연히 51이 승자이겠지만 상대방인 49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됨으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의 오만한 횡포에는 답이 없다. 이런 다수가 권력이 되면 사생활에까지 간섭이 심해진다.

‘자유’로울 줄 알았던 민주사회는 공권력이 전횡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이렇게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어 그 결정을 따르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자유’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전체주의적 사회화가 춤을 춘다. 쥐꼬리만한 권력이나 자라도 권력이라고 사람들은 그 편에 줄을 서게 된다. 그래서 정치는 그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밀전삼아 적당히 관리하며 소비하다 문 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겉으로 ‘혁신’, ‘미래’를 말하지만 그런

갈등과 분쟁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혼돈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할 것이 있다면,
성경적 가치·지혜가 아닐까

변화와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니 꿈도 꾸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갑(甲)들’의 세상이다. 실직자·무주택자·신용불량·자고령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 키우고, 사회적 불공정을 대놓고 자행하는 데도 가진 자들의 갑질에는 해답이 없다. 이것이 ‘천민자본주의’의 실체이자 패해이다. 정부는 땀흘려 일하는 자들이 보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정의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의 왜곡과 독점폐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주요공급의 법칙을 뒤로하고, 저녁 값부터 아파트값까지 정부가 정하고, 일자리도 국가가 만들고, 친시장 정책을 외면하다보니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이 붕괴되거나 교란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자율성을 통제하고 역동성을 상실케 하며, 개인의 다양성이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갈 순 없지 않는가. 이렇듯 불안정하고 모순을 안고 있는 구조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기에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최대 다수라는 지분을 가졌

다거나 돈 많이 낸 사람이 갑(甲)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대로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남용되는 권한을 탐하고 누리려는 어찌된 언제 타 죽을지도 모르는 불빛에 달려드는 불나방들이다. 그런 순간적 달콤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낡은 시스템을 지켜려 한다. 이들이 진정한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낡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시도할 용기나 기회가 있을까. 침몰하는 배와 같은 대한민국(號)을 누가 구할 것인가. 국회를 바꾸고,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렇다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을 추구하는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념 양극화와 정치 불신을 넘어설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떤 정치가, 어떤 권력이, 어떤 가치가 이 사회를 융합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브레이크 없이 오만하거나 탐욕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나만의 환상일까. 이런 세상을 지향하는데 기독교 가치가 전제되거나 전환되지 아니고는 건강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 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기독교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깔리므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시스템이다.

이 시대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일까. 의무·책임·열정·안목·균형감각 등이다. 다들 자리에 대한 열정은 뜨겁다. 지도자는 짐을 지는 자다. 하지만 의무에는 무관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다. 또한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균형감각까지 두루 갖추면 최고의 경지다. 오늘 우리 지도자에게 그런 다섯 가지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한 지도자라면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한다. 오늘이 있기까지 당당한 성취를 펴왔거나, 과거사만을 드러내 국민을 자조적자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열정과 책임, 그리고 안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결국 자살하거나 권력을 놓음과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우수한 경쟁자를 죽이는 소비정치는 어떤 말로 설명해도 불행하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 광장을 촛불로 물들여도,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주 되풀이 되는 사고의 후진성에 과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어제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의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어차피 정권은 돌고 도는 것. 대통령제와 양당정제, 수도권 중앙집중부터 바꿔야 한다. 자치

능력이 사라지고 중앙으로 권력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기존 가치에 대한 ‘각성의 대전환’이 필수조건이다. 보수가 보수로 살면 ‘보수꼴통’이 되고, 보수가 진보로 살면 ‘후안무치’가 되고, 진보가 진보로만 살면 과격해지거나 ‘무도덕’하기 쉽다. 무너져가는 권위를 지키려 하면 ‘꼰대’가 되고, 기독교에 의지하면 ‘적폐’가 된다. 진보는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으로 빛진 자의 과거 채무를 탕감하거나 어려운 이들의 세를 경감해 준 정치가이야기가 나온다. 개혁적으로 볼 때, 시스템 변화의 노력으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전통적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권한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일명 ‘불의한 정치가’를 주인은 오히려 ‘지혜롭다’ 칭찬했다. 혹시나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꾼 것 아닐까. 시대에 맞는 옷처럼 시스템의 변혁과 새로운 가

치가 필요한 것 아닐까. ‘우리끼리’의 권력에 취하면 안팎의 쓴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권력은 위험하다.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켜 패자리끼리 이익을 취하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탕감’과 ‘등용’, ‘대 탕평책’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감하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사회적 틀’을 만들기 위해 ‘통합과 융합’의 가치를 높이 들

어야 한다. 갈등과 분쟁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적 가치와 그 지혜가 아닐까 싶다.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보다 더 현명한 신앙의 지혜가 언젠가는 세상가치를 바꾸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빼아픈 역사의 기회비용을 이제 그만 치르고 변혁의 그날이 빨리 도래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익숙한 것, 편리한 것, 편안한 것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을 따라 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물어진 것들을 진리로 풀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제게 소망과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사 38:17) 큰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모두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을 다 벗어나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시 29:11)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임하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기쁨을 줍니다. 저의 평

생에 평탄하여 잔잔한 강물같이 늘 평안을 주옵소서.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평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믿음은 불멸의 방패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옵소서. 불신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믿음이 없이 비뚤어진 세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저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분노로 감정을 흔들며 지성을 마비시키고, 원망과 오해, 불평의 낙서를 써 놓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삶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불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군세 산성이 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요한 목사는 숭실대, 송의여대 교육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육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사순절의 영성』,『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근육생성 필수 아미노산
함량 높은 **하루콩력**

갈수록 말라가는 부모님께 ‘살찌우는 발효콩’으로 근육 선물하세요!

마른 사람들은 대개 근육이 부족합니다. 가족이나 부족한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빠져나가죠. 근육을 보호하지 못해 몸이 앙상해집니다.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속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더부룩한 증상을 겪기 쉽죠.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 얼마나 잘 흡수되어 근육으로 바뀌느냐가 살을 찌우는 관건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 마른 사람의 장속에서도 잘 흡수되는 단백질! 그 주인공이 발효콩 단백질입니다.

발효콩 단백질은 말라서 힘없는 분들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효콩 단백질은 주로 식물성 단백질 중 필수 아미노산을 가장 이상적으로 함유한 대두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한 검은콩을 발효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발효공학자 계명대학교 정용진 교수가 개발한 ‘저분자 펩타이드 공법’은 콩에 든 단백질을 ‘흡수력 팜’으로 만드는 발효공법으로 특허까지 받은 기술입니다. 이 공법으로 발효된 콩은 발효 전 콩보다 8종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10.5배 더 높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류신은 32.5배까지 높아집니다.

근육을 생성하고 살찌우는 데 좋은 자격을 갖춘 셈이죠. 살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발효콩 단백질만 힘쓰는 게 아닙니다. 발효콩 단백질에게는 단팥이 있

니다. 바로 영양 흡수를 돕는 효소입니다. 대한민국 ‘효소 선구자’로 불리는故 이정익 선생의 사위 전진성 대표가 장인의 기술력을 이어받아 고강도 곡물 효소를 탄생시켰습니다. 2대에 걸쳐 완성된 통곡물 완전발효 기술을 통해 미생물이 곡물을 분해하며 내뿜는 효소입니다.

발효콩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을 빠르게 체내로 공급하면, 효소가 아미노산의 분해·흡수를 강화시킵니다. 효소의 힘으로 발효콩 단백질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삼시세끼 밥 먹은 영양분도 잘 분해해 몸에 속속 흡수시키니 ‘빠지지 않는 몸’을 만듭니다.

건강체중 프로그램

몸에 속속 흡수되는 발효콩 단백질

영양흡수 잘 하게 만드는 효소

둘이 함께 출동하면 건강체중 완성!

건강체중 프로그램은 단백질 및 영양분 흡수가 잘되는 체질 개선을 위해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체중 프로그램 문의
www.ilove62.com

080-745-9230

(주)무문친구들 대표 양윤철 / 서울시 관악구 남문순환로 938 성은빌딩 5층 / 02-3477-6235 / 동산면매업신고증 제관악-0360호 / hyginus@naver.com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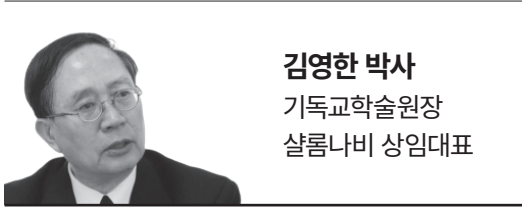
본문: 사도행전 4:23-37
설교: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
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고봉(高峯) 김치선의 개혁신학 사상의 특징 II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5. 정통 개혁신학적 성경관

고봉은 모세오경의 모세저작설을 주장하면서 고 펄비평을 비판했던 구(舊) 프린스턴학파의 헨리 그린(Henry Green) 교수와 그의 제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오스월드 엘리스(Oswald Allis) 박사의 논거에 근거하여 모세오경에 대한 자유주의의 문서설을 비판하면서 모세 저작권 논제를 구성하고 있다.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주장을 성경의 내적 증거와 비평학자들의 주장들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해명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화와 비교한 창세기 내용들의 독특성, 그리고 당시 진행되고 있던 고고학적 발굴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구 프린스턴 학파의 성경 영감설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김치선 저, 최선 역, 『김치선 박사의 모세와 오경』, 선교 햇빛, 2015)

고봉은 신학박사 학위논문 서문에서 다음같이 피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사회복음”(Social Gospel) 선포하고 “보혈 속죄”(Blood Atonement)를 거부하고 있다. “비평가들이 오경의 모세 저작설과 이른 시기의 저작이라는 면에서 성경을 비평하고 공격하므로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통해 비평가들의 잘못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논문이 쓰여졌다.” 그는 문서 비평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고대 근동의 창조론과 신화론의 서사시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언어학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the epic of Gilgamesh)를 직접 읽고 분석하고 있다. 고봉은 역사비평학의 모세5경의 영감성 및 모세 저작설 부인에 대하여 다음 4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있다.

1장, 성경 자체가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것을 입증한다.

2장, 파괴적인 비평가들의 주장을 설명한 후에 핵심적 내용: 모세 오경의 시대착오, 불일치, 비일관성 비판을 반박하고 모세가 오경의 저작권을 입증한다. 이 장에서 저자는 웰하우젠(Julius Wellhausen),쿠에넨(A. Kuenen), 그리고 드라이버(S. R Driver), 스미드(R. W. Smith)를 비롯한 문서설을 주장한 성서학자들의 주장을 성경과 당시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자료들을 이용하여 비판하며 오경의 모세 저작설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독일의 보수주의 구약학자 카일(Carl. F. Keil, 1807-1888)과 텔리치(Franz Delitsch, 1813-1890)의 『모세 오경 주석』(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66), 구프린스턴의 그린(Henry Green)의 『오경에 대한 고등비평』, 그리고 화이트로(Thomas Whitelaw)의 『창세기.출애굽기.민수기 강단주석』(The Pulpit Commentary of Genesis,

Exodus, Numbers), 알리스(Oswald Allis)의 주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저자는 모세 시기에 십계명의 입법 가능성을 주장한 로버슨(Robertson, Early Religion of Israel)과 오르(James Orr,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3장, 바벨론 신화와 비교하면서 오경의 모세 저작 사실을 입증한다.

4장, 모세와 아브라함의 실존 가능성을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모세의 오경 저작권을 입증한다.

결론에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고봉은 그의 논문에서 19세기 후반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서 성경의 영감설을 주장하면서 문서설을 강력하게 비판한 그린(William Henry Green, 1825-1900)의 저작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린은 구약신학을 가르치면서 당시 성경에 대한 문서설의 고등비평이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오던 시대에 필생의 저작으로 오경의 모세저작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의 글들은 그의 사후에 모세오경에 대한 고등비평이라는 저서로 출판되었다.

고봉은 19세기 독일 루터교 전통의 정통구약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참고했는데 카일은 헬스틴베르그의 신학을 이어받으면서 독일 자유주의신학의 문서설을 무시하고 구약을 하나의 영감된 계시의 책으로 본 정통보수적인 구약주석학자였고, 텔리치도 엘랑엔 교수로서 구약의 영감설에 근거한 견해를 피력한 보수적인 학자들이었다. 두 학자는 공동으로 구약의 주석을 펴냈고 이 주석은 오늘날까지 보수신학의 목회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알리스(Oswald T. Allis, 1880-1973)는 독일 베를린대에서 1913년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신대에서 1910-1929년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가르치다가 좌경화에 반대하여 메이전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1929-1936)로 봉직한 복음주의 학자이다. 그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저술했다는 『모세오경』을 출판하였다. 그의 저서가 많이 인용되었다. 스코트랜드 출신의 제임스 오르(James Orr)의 1906년 문서설 비판저서 Problems of the Odd Testament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Recent Criticism)도 인용되었다.

고봉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창세기 36장 31절에서 스코필드의 성경(p. 35)을 인용하는 것 외에 달라스신학교 교수들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고봉의 박사 논문에 달라스의 세대주의적 영향을 나타나지 않고 그린과 엘리스를 중심으로 한 구프린스턴학파와 웨스트민스터학파의 개혁신학적 입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루터교 전통의 카일 및 텔리치의 견해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당시의 성서 및 근동 아시아 고고학자 올브라이트(W. F. Albright, 1891-1971)의 저서 『팔레스틴의 고고학과 성경』(The Archeology of the Palestine and the Bible, New York: Fleming H Ravell,1932), 영국 복음주의적 고

고학자 마스톤(Charls Marston)의 『1925-1933년으로부터 새 성경 증거』(New Bible Evidence from the 1925-1933 Excavation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4), 미국 고고학자 고고학자인 울리(C. L. Wooley)의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지역의 환경과 발굴 결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들(Antiquaries’ Journal Vol. V, No.4 와 Vol. VI, No.4에 기고) 등으로 보아 고봉의 논문은 구약신학적으로도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평가된다.

6. 하나 되게하는 성경론 및 은사 지속론 입장

1) 성경의 역사를 하나됨과 관련시킴

고봉은 일본 동경에서 대형 한인교회인 동경 신주쿠중앙교회(東京新藏中央教會)를 목회하면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영감으로 준비된 설교로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면서 동경 안에서 조선인으로서의 큰 성경의 역사를 일으켰다. 성경의 살아있는 생동적인 사역에 대한 그의 신앙은 “하나

고봉은 자주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 아닌,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흘린 높은 차원의 눈물이었다

님의 절대주권을 통한 부흥, 성경의 비상한 역사를 통한 교회의 회개와 갱신, 성도의 삶의 변화를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봉에게 있어서 성경 은사는 눈물 목회로 나타났다. 1944년부터 시작된 고봉의 눈물 목회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준비했고,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의 정치적 혼란기에 월남 파나민들과 혼란의 와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바예를 달래 주었다. 3백만 구령운동의 중심은 남대문 교회였고, 중심 인물들은 남대문교회의 신자들이거나 남대문 교회 내의 대한신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70명의 전도 목사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였다. 이때 월드비전(World Vision, 선명회) 창설자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밥 피얼스(Bob Pierce), 국내 부흥사 이상봉, 김민서, 박재봉, 손양원 목사 등이 설교하였다.

고봉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또는 설교 중이나 강의할 때, 심지어는 상담할 때에도 자주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흘린 높은 차원의 눈물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한국의 에레미아” 혹은 ”눈물의 선지자”로 추앙받았다.” 고봉은 대한신학교 강의 시간에도 자주 눈물로 강

의를 하였다고 한다.

고봉은 교회의 부흥을 강조하였다. 부흥을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전통이 가르치는 바같이 성경의 역사를 통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였다. 고봉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되게 하는 것, 평화로 보았다. 그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실현되고 있습니까. 화평으로 연합한 중에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맺어지며 평화의 관계가 성립됩니다”고 하였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즉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영적 일치의 이롭입니다.” 고봉은 성령 받음을 강조한다: “오늘도 우리의 급선무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우리 성도들이여, 한 마음으로 힘써 항상 기도하되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함없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 또한 역사는 중지되는 것이니, 우리는 쉬지 말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고봉은 성경의 역사는 화평으로 연합하는 중에서 되는 것이라고 외쳤다. 고봉은 박형룡이나 박윤선 처럼 성경론을 학문적으로 가르쳤으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민족 복음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성경 사역을 위하여 실천적으로 활동하였다.

② 은사 지속론

고봉은 자신이 유은 사를 직접 사용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부흥전도자로서 조나단 웨드워즈가 일으킨 대각성운동처럼 성경의 사역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 선다. 그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일제하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해방 후에는 남북 분단과 이념적 분쟁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라고 보아진다

고봉이 남대문교회를 사임하고 창동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이전해왔는데 그중에는 훗날 전도관을 장성하여 이단 교주가 되어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박태선 집사가 있었다. 박태선은 초창기에는 흡집을 때 없는 훌륭한 교인이었다고 한다. 언제나 겸손했으며, 모든 일에 열심이

었다. 교회에 나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렬하게 찬양을 했고 교회 일이라면 자기 사업을 제쳐두고 봉사했다. 특히 목사 대접하기를 그야말로 하나님 대접하듯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김치선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전교인에게 신망과 사랑을 받았다. 김치선牧사는 창동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에 의하여 장로로 피택되어 장로 안수를 받게된 박태선에게 담임목사로서 ‘언제나 많은 은혜를 받다보면 교만해져서 탈선할 수 있으니 대한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고하였지만, 그는 바쁜 생활로 늘 미루어 오다가 결국 신학을 하지 못하게 됐고 탈선하게 된 것이다. 박태선은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 변계단 권사; 이성봉 목사 등 유명한 부흥사들의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경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여 자기도 안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안수를 받고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고봉이 허락해주었으니 고봉은 성령 은사 지속론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박태선이 악령에 사로 잡혀서 돌변하게 된 것은 바로 1955년 3월 28일부터 남산공원(한국 신궁터 광장)에서 열린 부흥집회 때부터였다. 환자들이 일어났고, 몸이 떨리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으며,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다. 성경의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에 실려 온 신비로운 향기였다. “난데없이 썩은 뼈 타는 냄새가 나더니, 그 악취가 어느 사이엔가 사라지고, 백합화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아슬이 내리고” 가이한 광채가 그 분위기 속에 자욱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기)으로 박태선은 전국을 돌며 집회를 했고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하여 자신이 “체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님 보좌에 같이 앉을 권세, 만왕의 왕의 이름을 받을 권세”를 함입어 속량(贖良)의 대업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주의 보혈을 받았고, 자기 몸에서 이루어졌고, 남에게 분배해 준다”고 하는 “피가림”의 실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후 고봉은 그를 교회에서 제명처분하고 장로직을 면직 시켰으며, 관계를 단절하였다. 고봉이 남대문교회 시절에 박태선에게 장로 안수를 주고 그의 집회를 도왔다는 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계속>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재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65,000원 /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간 『리얼 코셔 예수』

2천년 동안 교회에 감추어진 메시아 예수님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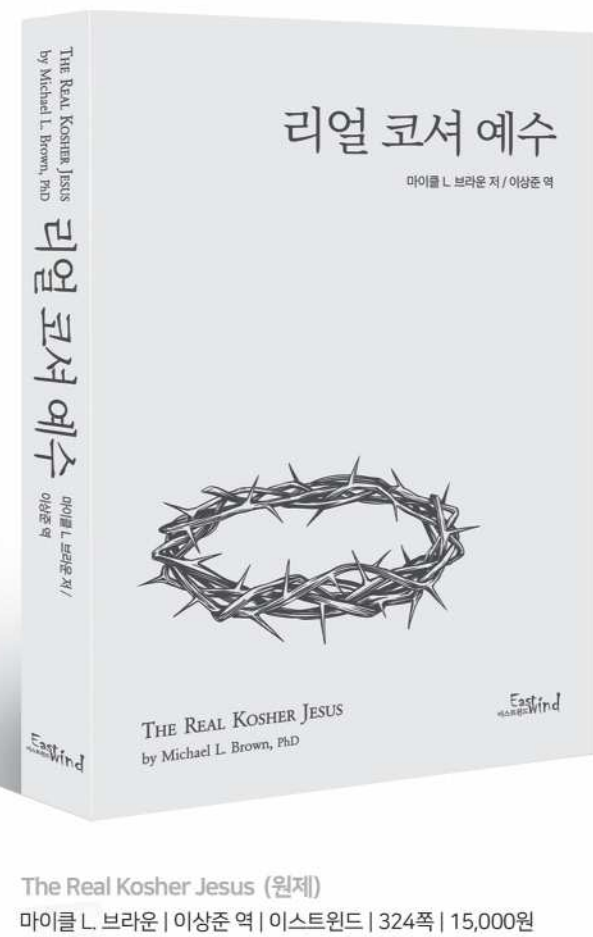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 마이클 브라운 박사(Michael L. Brown)는 히피족의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정통 유대인들과 랍비들에게 둘러싸인 환경 속에 두셔서, 그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 공동체의 반대와 비판과 시험을 겪게 하셨다. 그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면서 수십 년의 신학적 연구와 유대인들의 끊임 없는 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반대 의견을 이겨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메시아닉 유대인 변증가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 그 누구와도 다른 랍비
- 죽음 당하신 어린 양
- 고난 당하는 메시아의 비밀
- 제사장 메시아의 비밀
-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의 비밀
- 숨겨진 지혜의 비밀

역자 이상준

저서: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 『아빠와 말씀을 1』, 『복음서의 히브리적 배경』
역서: 『야살의 책 1』, 『야살의 책 2』,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들은 봉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빛, 복지시설 탐방

[인터뷰] 다일천사병원 김현자 부원장

다일복지재단이 설립한 다일천사병원은 병원 문턱이 높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무의탁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개신교 전액 무료병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사명 받은 우리들은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다일천사병원 김현자 부원장을 만났다. 아래는 일문일답.

다일천사병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다일공동체는 1989년 무료급식 운영과 함께 무료진료를 해왔다. 이사장 최일도 목사님은 병들어 죽어가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병원에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서 되돌아오는 뼈아픈 경험을 자주 했다. 그들이 돈 한 톨 없고 아무 연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느 날 혼자된 사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최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성가복지 병원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수녀가 “개신교 교회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매번 이곳으로 옵니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최 목사는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품게 됐다.

그 후 1993년 11월, 청량리 뒷골목 작업여성과 주민들이 모아준 47만5000원과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모은 1천100만 원이 병원 건축을 위한 최초의 현금으로 드러졌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사(1004) 운동을 실시해 모금했고, 국내외에서 뜻을 같이하는 천사후원회원이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10년의 천사데이 운동 끝에 2002년 10월 4일, 다일천사병원이 개원했다. 천사병원은 개미군단의 십사십팔 정신으로 설립된 자선병원으로, 지금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도움 없이 순수 민간 후원금만으로 유지되는 국내 유일의 전액 무료병원이다.

다일천사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초반엔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치료했다.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이들을 위한 의료혜택이 좋아졌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권 밖에 있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주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숙인, 행려자, 주민등록말소자들이다.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을 선별해 진료한다.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보험이 있는 것이 더 손해다. 보험이 있으면 병원비와 약값으로 2천500원~3천 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돈조차 없어



다일천사병원 전경 ©다일복지재단

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 후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원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노숙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외국인 중에는 평택, 안산 등 먼 곳에 사는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오기도 한다.

다일천사병원의 진료과목은 무엇인가.

천사병원은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치과를 기본과목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의료진과 협력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외에 천사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내용은 감사하게도 전원 의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개원 때부터 청량리역 5~10분 이내에 있는 개인병원 원장님들께서 무료로 진료를 봐주시겠다고 해서 의뢰서와 함께 환자를 그 병원으로 보낸다. 이 중에는 방사선과 CT 촬영까지 무료로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 환자를 보내면 다 검사한 후 의뢰서 밑에 코멘트와 약 처방 내용을 적어준다. 그러면 천사병원에서 약을 제조해준다.

다일천사병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작업이 대학병원 수술실 전문 간호사였다. 수술실에 있으면서 심장수술과 뇌수술까지도 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천사병원에는 2004년 1월에 정식으로 입사했고, 그전에 아이를 키우며 6개월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봉사할 때, 천사병원이 워낙 작은 병원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수술은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봉사자만 있었고, 적합한 적임자도 없었다. 마침 수술실 전문 간호사를 한 명 뽑는다고 해서 집도 가깝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입사했고, 벌써 16년이 흘렀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병원에 데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온 아시아 어린이들 ©다일복지재단

려다 놓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과거에 아버지가 미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셔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랐다. 그때의 일을 잊고 살았는데, 네팔에 해외 의료봉사를 갔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다. 사무실에서 의료용품을 챙기고 있을 때 유리창에 아이들이 매달려서 뭐라도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어릴 적 내 모습이었다. 선교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달라, 과자 달라고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정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사명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천사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맞다. 상주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이분은 천사병원에 의사 면허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활동을 전혀 못 한다. 원래 의사 월급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셨다. 인건비도 최소 교통비밖에 못 드는데 그 비용마저 다 후원금으로 내시고, 해외 선교를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씩 많은 후원금을 내시기도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도 오래 하시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가셔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나의 경우도 급여에 관해서는 들어올 때부터 일절 요구하지 않았고, 주시는 대로 받고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다.

2005년에 진행한 ‘BCP(뷰티풀 체인지 프로젝트)’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수술을 해주는 사업이었다.

사업을 위해 해마다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에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를 함께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대부분 호적신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본국에서 호적부터 주민등록까지 완료하고, 여권을 만들어 비행기를 태워서 데리고 오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프로젝트에 서울대 치대 학장님이 재능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천사병원 수술실에서 치과 수술과 성형외과 수술을 같이 했고, 약 153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다. 수술해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하루에 두 명씩, 밤 11시~12시까지 수술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외모가 변하면서 인생답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BCP 외에도 천사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는 심장병, 척추측만증(옆굽음증) 등의 큰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비를 모금해서 대학병원에 연계하기도 했다. 5~6살 때 심장수술 한 캄보디아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은 중학생 돼서 우리 꿈퍼(교육지원)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해외봉사를 가면 만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

천사병원 수술실에서 10년 정도 수술이 많이 이뤄졌다. 자궁 수술, 위암 수술도 한 적이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의료사고 없이 모든 수술이 잘 마쳐져서 참 감사하다. 의료봉사를 오는 분들은 서로 처음 수술을 해보시는 분들이다. 세팅을 미리 해놓으면 수술 30분 전에 와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수술을 하는데도 손이 잘 맞아 무사히 끝났던 수술들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 운영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나.

가장 먼저는 병원을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후원자들의 후원, 기도, 사랑이

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감동받는 것 중 하나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전화로 후원하거나, 이름도 안 적힌 봉투를 건네고 가는 일이다.

한번은 어떤 분이 병원에 오셔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갔는데, 열어보니 수표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쫓아갔는데 정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겨우 설득해 전화번호를 받아 왔다. 재단의 기록을 토대로 번호와 이름을 매치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의 사연은 이랬다. 본인은 혈액신장투석을 받는 환자이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한다고 했다. 자신의 딸이 심장병을 앓았는데 과거에 TV에 출연해 최 목사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지금은 건강해져 직장도 다니다며 은혜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적금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연에 직원 모두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병원 개원 10주년 때 이분을 초청을 해서 뵈는 적도 있다.

천사병원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천사병원이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치료받는 분들도 후원자가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함을 많이 표현한다. 필리핀 사람 중에는 한국에 와서 의지할 곳도 없고 치료받을 때도 없었는데, 천사병원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하고 생애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고백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도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다.

운영 시 어려운 점이냐 바라는 점이 있다.

국가로부터 의사 인력이 지원되면 좋겠다.

현재 병원 내에 상주 의사 1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이 있다. 인력이 많지 않은데, 특히 의사가 부족하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채용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대부분 의료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간제 간호사를 한 명 파견해줬다. 간호사가 혼자였을 때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로 분주했는데, 지금은 행사지원, 외근, 행정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정말 감사하다.

의사도 간호사처럼 공중보건이나 코이가 군대 체복무 등의 인력을 이곳에 3년씩 파견해주는 등의 지원이 생기면 좋겠다.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

천사병원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중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게으르다고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사명을 다하는 것이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실 때까지 천사병원과 함께할 계획이다.

서다는 기자

기도시작일
2020 0601

일천일 기도기간
2020.6.1~2023.8.10

제3차 나라사랑 전성도

일천일 24시간 특별기도회

우리 함께 **변화하자** 복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새우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 기도로!

세우자 반석 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14:38)

하나님은 우리를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천일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온 국민과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해진

특별 기도제목

- 한국교회 본질회복과 삼합(화합·연합·통합)을 위해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 국가의 경제·안보·안정을 위해
- 진리인 남남·남북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 기독교 언론의 사명 감당을 위해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
-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한 지도자 세움을 위해
- 한국교회 복음적 예배 회복을 위해

일천일 기도용사로 동참하실 분은 나라사랑기도본부로 연락주십시오.

나라사랑기도본부 010-7530-6754 / 031-397-6754

부동산

안양 교회임대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매물크기: 2층: 45평 지층, 3층: 20평

-거래가격: 총 마다 가격이 다름(연락요망)
*즉시목회가능 주거가능

연락처 ☎ 010-3412-3976

초역세권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능곡동)58
-거래금액: 9억1천만원(재정부와 상의후
3천~5천사이 조절가능)

-매물크기: 분양평수 170.38평(실평수 98평)

연락처 ☎ 010-2765-1601

전원주택 / 작은교회

-매물크기: 대지:전용면적 186평
건축물: 전체 74평
-거래금액: 9억원 (900,000,000)
-매물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에서
약 4km)
▶문의 ☎010-2282-1119(건물주)

부천 교회임대

-거래금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매물위치: 경기도 부천 중동(부흥로200)

-매물크기: 221.66m2 (약65평)

연락처 ☎ 010-8870-4049

개척교회로서는 최상의 조건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55평
◎거래금액: 2000/85 시설비-2천(조정가능)
◎매물위치: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36번길3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시설비는 5천정도. (시설비 2천-조정가능)
▶연락처 ☎010-5303-9191

위치좋은 교회매매

◎매물크기: 지분- 249.4㎡ (75.44평)
/상가- 122.94㎡(37.18평) (유아실, 목양실)
◎교회 앞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화예술 회관과
체육시설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음.
◎매물위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송APT 상가

▶연락처☎010-9626-9175

유동인구 많은 교회임대

매물위치: 서울시 광진구 노루산 시장 앞
1. 노루산시장 앞 유동인구 많음
2.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음 / 카페같은 분위기
3. 방음이 잘되어 있음.
6. 예배실, 화장실1개, 부엌, 사무실겸 목양실, 유
아실, 창고3평, 목사개인기도실
▶연락처☎010-8884-0291

영흥도 교회매매

-매물위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674

-매물가격: 27억 (분할매매가능)

-매물크기: 대지 (920/278.3평)

연락처 ☎ 010-4759-5946

신축교회 긴급매매(제주)

-매물위치: 제주 서귀포시(영어교육도시 內)
-교회운영 즉시 가능
-영어교육도시: 120만평
-국제학교(3개) 운영중 (미국, 영국, 캐나다)
-공동주택(단지內) 3,000세대
-거주인원 10,000여명
▶연락처 ☎010-5779-2368

사당동 교회임대

- 위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매매가: 보증금 4,000만원/월세 140만
-매물크기: 165.00㎡(약50평)

*대부분의 성구와 시설을 그대로 놓고 갑니다.

연락처☎ 010-6253-0273

최고입지 교회매매

대지(303평, 2필지) - 종교용지 271평 + 밭 32평
건물: 교회-1층(62평) - 소예배실, 식당, 공부방,
관리실, 화장실, 2층(62평) - 본당, 사무실
사택(29평)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래금액: 7억원
◎매물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연락처 ☎010-3727-6607

고급주택 매매

◎매물크기: 대 2805㎡
+ 최고급 유립식 단독주택 2동
◎거래금액: 15억 ◎매물위치: 경기도 파주시
[매물장점]
-천혜의 자연경관, 조경완벽, 인프라최상 속도,
-기도원, 연수원, K팝속소 및 연습실 최적
▶연락처 ☎010-4830-7383

카페 교회임대

◎매물크기: 20평 ◎거래금액: 500/25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APT상가內
[매물장점]
-4층 건물에 2층, 바로앞 2300세대 아파트 있음
-목양실 있음 전기판넬 있어 생활 가능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
▶연락처 ☎010-4979-7478

오산 최고입지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 오산 단지내상가
해당층수: 3층의 3층 304호
난방방식: 도시가스
상가용주차장/아파트 건물주차장이용.
잔금치르고 입주/협의바람.

☎ 010-4009-1597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일수(640211-1*****) 2020. 1. 11. 사망
최후주소: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미정
빌라)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2379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7. 22.
◎ 청구인: 김혜영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48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경(750429-2*****) 2015. 9. 15. 사망
최후주소: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814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7. 13.
◎ 청구인: 1.진명민 2.진수진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경(750429-2*****) 2015. 9. 15. 사망
최후주소: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878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7. 13.
◎ 청구인: 진재민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대전 동구 태전로 70-29(삼성동)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무송(500424-1*****) 2008. 9. 5. 사망
최후주소: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60 (둔산동, 둔산플러)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1269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 7. 21.
◎ 청구인: 1.김영지 2.박문숙 3.김영문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군포시 고산로 185번길 31, 106동 1806호
(당정동, 청천마을성원아파트)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현수 (850803-2*****) 2020. 5. 11 사망
최후주소: 수원시 장안구 하룡로11번길 12 (천천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1054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7. 15
◎ 청구인: 1. 김덕도 2. 정기모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5길 4, 3동 303호
(목당연립주택)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전성미(660815-2*****) 2019. 6. 15 사망
최후주소: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 1길 32-5, 504호
(두정동, 해피빌)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357 상속한정승인(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7. 20.
◎ 청구인: 1.이진아 2.이진아 3.이준희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강원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49, 105동 1005호
(해림탄플레이스)

2020. 7. 27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진철(500123-1*****) 2017. 5. 25 사망
최후주소: 인천 남동구 석산로 101번길 38-8(간석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10828 상속한정승인(인천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7. 22.
◎ 청구인: 조옥순, 김명윤, 김현주
◎ 공고기간: 2020. 7. 27. ~ 9. 27.
◎ 신고처: 인천 미추홀구 토곡북로 17번길 13, 205호
용원동, CASA24)

2020. 7. 27

분 실 공 고

분 실 내 용 : 아파트 공급 계약서

부동산 표시: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롯데캐슬클라시아 113동 412호

공고인: 이창선(010-2155-7162)

2020. 7. 27

분 실 공 고

분 실 내 용 :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부동산 표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1,
더 오페라 2차 1동 1525호

공고인: 이명옥(010-8812-1169)

2020. 7. 27

농장매매

- ① 안성 일족 화봉 토지 5,610㎡
대지 1,980㎡ 주택2층 창고1동
목장 1,485㎡ 조용한 한정식당 위치
- ② 충주 2층 주택건강원 소목장토지
2차선도로접 1,485㎡ 4억2천
- ③ 음성 소이면 농가주택 대지 1,650㎡
- ④ 5층 병원 건물약국인수 할분 오산중심
- ⑤ 화성 장안 계획관리 도로접 토지 650평

문의 010-6341-3477

수양관(기도원)매매

- 대지.임야 11,000평 (힐링 코스)
- 건물(2층) 300평 (200명 예배)
(1층): 예배당 / (2층):숙소.식당.주방
- 청평면 소재 (강남에서 1시간)
- 청평.가평대로에서 5분진입
-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 (투자)
- 인수가격.조건협의 진행

연락처 ☎ 010-5779-2368

기도원 전원주택
(농장)매매

- ▶대지.답 560평 (하천부지 250평 사용)
- ▶주거시설 .창고등 40평
- ▶과실수 500주 식재 (블루베리)
- ▶기타 시설물. 장비일체
- ▶홍천군 주읍치리

문의 010-5779-2368
(가격협의)

교회긴급매매 신축

- ▶부지: 1400평
- ▶건물: 400평 (4층)
- ▶현재 정상 목회 운영중
- ▶인수 즉시 목회가능
- ▶제주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센터 위치
- ▶인수가격.조건 협의 진행

문의 010-5779-2368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풀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바이블지식IN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가

질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가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답변: 어쩌면 이 질문은 모든 기독교 신학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물음은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를 분리시킨 종교개혁이 일어난 요인입니다.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기독교와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 종파들을 가르는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위에 의한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떤 것

들을 더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위인가'의 문제는 일부 조화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3장 28절, 5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야고보서 2장 24절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과 야고보(믿음과 행위로 얻는 구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독단적으로 말하는 반면(엢 2:8-9) 야고보는 믿음과 그에 더해진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

다. 이 문제는 야고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약 2:17-18).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에는 변화된 삶과 선한 행위들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약 2:20-26).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정 의롭게 된 자는 삶에 있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라고 주장하면서도 삶에 선행이 없다면 그 사람

은 아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닐 것입니다(약 2:14, 17, 20, 26).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좋은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구원 받았음을 말한 후에(엢 2:8-9)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알려줍니다(엢 2:10).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오늘의 말씀

사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되었다"(고후 5:17). 야고보와 바울은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주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선한 행위를 맺는 것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단지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출처] 갯세스천스

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II

가톨릭에서 목주 기도를 올릴 때는 예수와 마리아의 생애에 있었던 스무 가지 '신비'에 관해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신비들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요일마다 기도예 포함된다. 환희의 신비(Joyful Mysteries)는 수태고지, 성모방문, 예수탄생, 예수봉헌,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음이다. 깨달음의 신비(Luminous Mysteries)는 예수의 세례, 가나의 결혼, 왕국의 선언, 변형, 최후의 심판이다. 슬픔의 신비(Sorrowful Mysteries)는 갯세마네의 고뇌, 매질, 가시면류관을 씌, 십자가를 짊어짐, 십자가에 못 박힘이다. 영광의 신비(Glorious Mysteries)는 부활, 예수승천, 성령강림, 성모승천, 마리아가 '천국의 여왕'으로 즉위함이다. 낯익은 가톨릭 기도문의 시작 부분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Hail, Mary, full of grace)"는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라틴어의 아베 마리아(Ave Maria)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은 수많은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만들었다.



땀겨나 그녀에게 헌정된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다. 대개 그런 교회의 벽에는 성모성당(Lady Chapel)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성서에는 마리아의 부모가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 원복음서』라는 아주 오래된 문헌을 보면 요아힘과 안나라고 되어 있다. 로마가톨릭은 그들을 7월 26일에 기념한다. 동방정교회의 축일은 9월 9일이다. 수많은 미술 작품 이외에 마리아는 예수의 생애를 다룬 문학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쉘렐 아슈는 마리아에 관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다. 작가 마조리 홀름스(Marjorie Holmes)는 젊은 마리아와 요셉을 다룬 『갈릴리에서 온 두 사람 Two from Galilee』을 썼다. 그런 작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마리아는 예수의 소년 시절을 다룬 앤 라이스(Anne Rice)의 소설 『주님 그리스도 : 이집트 탈출 Christ the Lord: Out of Egypt』에서 핵심 인물로 나온다.

예수에 관한 영화에서도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다. 프랑코 제피렐리(TV 시리즈 '나사렛 예수')나 멜 깁슨(『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독실한 가톨릭교도가 감독한 영화에서 마리아는 복음사에서 전하는 것보다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온다. 신교도들도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

신약성서의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무척 흔했다. 아람어의 마리아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 해당한다. 신약성서에는 예수의 어머니 이외에 적어도 다섯 명의 마리아가 더 나온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아주 흔한 여자 이름이다.

[출처] 돌베 출판사 (『바이블 키워드』, 2007. 12. 24., J. 스티븐 랭, 남경태)

니가 썼는지라"라는 성서의 구절이 함께 있는 '기념 창문'을 만들기도 한다. 이 창문은 대개 누군가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헌정된다.)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도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은 피에타(Pieta)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피에타는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성서에 나온다.

그밖에 로마가톨릭에서 기념하는 다른 축일들도 있다. 이를테면 원죄 없는 잉태, 승천, 마리아의 즉위,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같은 것들이다. 가톨릭교도들은 흔히 마리아를 BVM(Blessed Virgin Mary), 즉 '축복의 성모 마리아'로 줄여 부른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나의 사랑하는 책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도움을 주는 방법 3가지

1.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

때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나아가 쉼과 안식을 얻고자 하지 않고, 기도를 일이나 하나의 의식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방법이 된다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2.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하라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갈 때는 '정치적으로' 옳고 좋아보이는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므로 내 뼈를 찢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시편 42:9~11)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예 잘 드러나 있다. 시편을 읽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구절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당신 앞에 나아오길 원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신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갈 때는 항상 더 나은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3. 기도는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것이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변함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마6:8)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신다. 기도를 통해 더욱 그분의 뜻과 능력과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는 7가지 마음회복력

내 마음의 창조자

'임계점3시간 기도의 법칙' 이후 더 업그레이드된 박종기 목사의 두번째 마음과 기도의 책
코로나19(COVID-19)를 극복하는 마음을 위한 안내서

책서평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를 마음의 공동창조자로 부르심을 역설한다. 또한 생각을 창조하는 존재로 자음 받은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상황에서 선택이며 그 선택이란 마음이 회복하도록 7가지 - 담대함, 온전함, 온유함, 경건함, 약함, 행함, 사랑함 - 의 키워드로 설명하고 예를 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마음전문가를 위한 안내서이다. _손복희 (의정부영락교회)

저자소개

박종기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한세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2015년 경기도 구리시에 우리네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미국 Midwest University에서 Mental Health Counseling(M.A) 과정 중이다. 기도 중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창안해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기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마음 치유에 대한 비전을 품고 '마음학교:살롱캠프'도 함께 섬기고 있다. '홀리샤워'(Holy Shower)라는 찬양사역을 통해 디지털 앨범(1~5집)을 제작, '너를 교회라 부르리라' '내 마음의 창조자' '오순절의 부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 '주의 권세 내게 임했네' 등의 찬양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 있다.

박종기 목사의 출간도서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박종기 지음 | 13,000원

이 책과 강연을 CTS 기독교 방송에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영적인 기도 가이드가 되고있다.



[내가매일기쁘게]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저자 박종기 편

살아나는 임계점기도 강의와 집회를 신청할 교회는 010-4002-8291로 문의해주세요.

판매처 : 갯피플 / 인터파크도서 / 예스24 / 교보문고, 전국 기독교서점 온 오프라인 판매 15,000원

가정예배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본문 : 요12:1-8
찬송가 : 찬송가 346장(새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본문은 ‘베다니(가난한자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당시 문둥병자는 버릴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병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도 가까이 가기 꺼려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 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린 것은 분명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인하여 모든 것

을 바워내는 세계입니다. 주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까지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바우는 세계입니다. 주님은 모든 삶을 깨뜨려 죄인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유다가 분을 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배반자의 마음, 생각의 뿌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는 이 사랑의 행위를 낭비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해질 때, 십자가

는 낯설어지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비울 때, 분명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낮아지면 높임을 받게 되고, 죽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팔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

참 사랑의 주님,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시고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유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세계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거룩한 낭비를 알게 하시고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을 때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상식

감정도 지나치면 병을 부른다

오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도 상처가 깊고 아픈 경우가 많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의 병을 불러오기도 한다.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밥을 먹는다고 해도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탈이 날 수 있다.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것도 감정의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방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기쁨(喜), 성냄(怒), 생각(思), 근심(憂), 슬픔(悲), 두려움(恐), 놀람(驚)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하며, 이 감정들이 모두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어느 한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감정과 연관된 장부가 손상되면서 병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지나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감정은 오장육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화(怒)’는 간과 관련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노상간(怒

傷肝)이라고 부른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는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뻣뻣해지기도 한다. 이는 손상된 간이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가 나서 뜨거워진 간의 기운이 상승해 얼굴에 몰리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눈이 충혈되기도 한다. 두통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운 감정도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감정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기쁨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데, 심장은 오장육부의 중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적절한 기쁨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심장이 상하게 된다. 이를 희상심(喜傷心)이라고 한다.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의 열이 위로 올라가 얼굴을 붉게 만들고 헛바늘을 돌게 만든다. 생각(思)은 비장과 연관 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사상비(思傷脾)’, 즉 생각이 비장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기혈의 순환이 둔화되면서 몸이

차가워진다. 손발은 차가운데 열이 얼굴에만 몰려 여드름을 비롯해 각종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곱 가지 감정 중 근심과 슬픔은 폐에 영향을 준다. 특히 폐는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라서 근심이나 슬픔으로 폐가 약해지면 피부가 상하게 된다. 또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신장을 상하게 만든다. 일시적으로 잠깐 놀라게 되는 것은 괜찮으나 장시간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는 것은 신장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특히 한의학에서 신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콩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자궁, 전립선, 생식선)와 내분비계통(갑상선, 부갑상선, 뇌하수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면 생식기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신장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늙을수록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기미나 주름을 만들어 노화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일곱 가지 감정은 오장육부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오늘의 예화

행복과 불행의 차이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간 물이 떨어져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알프스 계곡 사이에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단숨에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몹시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는 <포이즌(poison)>이라고 쓴 경고판을 보았습니다. 이 물속에 독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의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심한 구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사판을 잘못 보았군요. 그것은 ‘포이즌(poison)’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포이즌(poison): 낚시금지’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청년은 ‘포이즌’을 ‘포이즌’으로 잘못보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열이 내리고 구토도 멈추고, 깨끗이 나아났습

니다. 이것이 생각의 함입입니다.

알파벳 하나, 받침 하나 잘못보거나 놓치면 해석이 달라지고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불행과 행복은 알파벳 하나, 받침 하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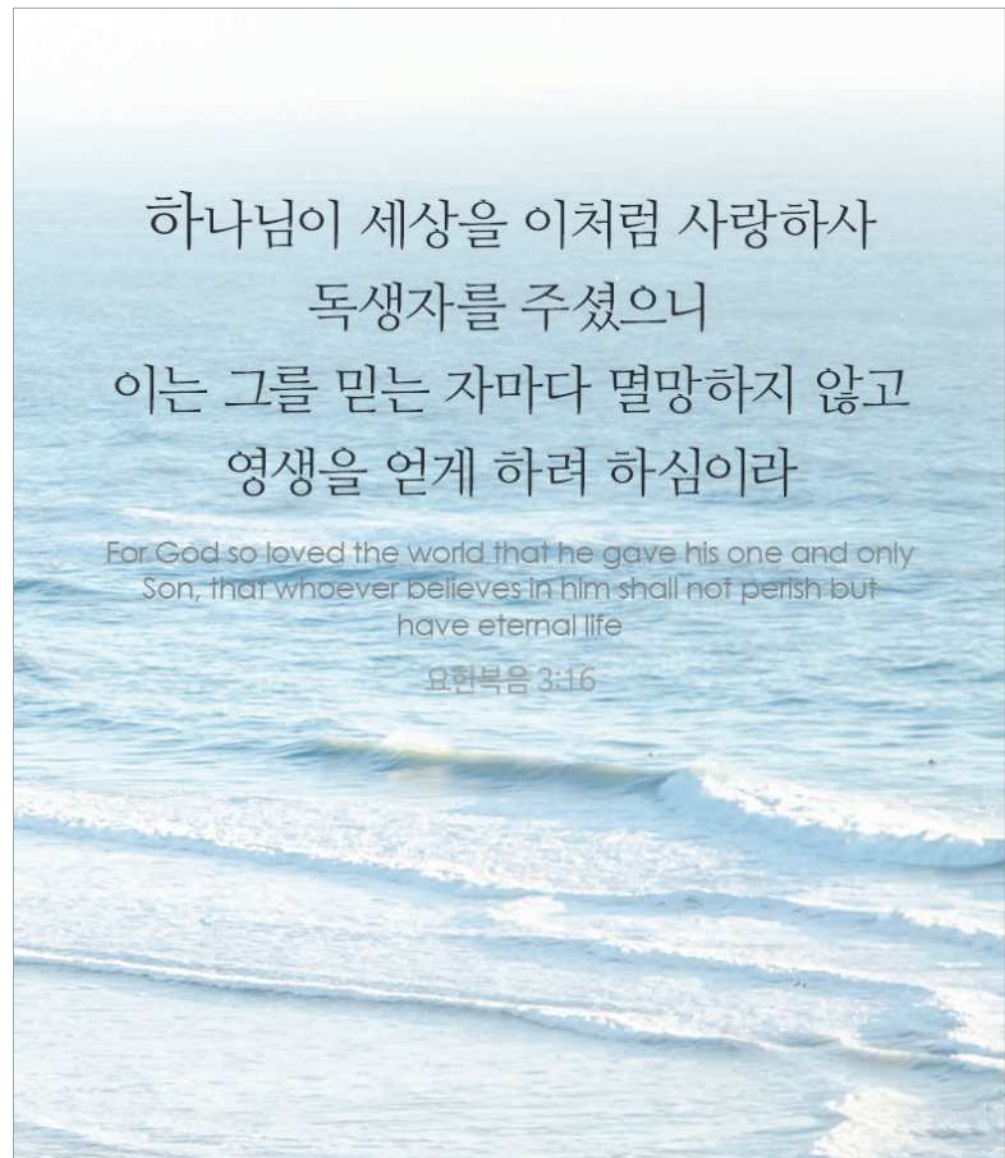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한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확산 중심에는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교리와 전통을 강조하는 정통성에 있다면, 신천지는 2천년 동안 전해오는 교리와 전통을 부인하고 이단의 영향을 받은 이단화라는 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성경을 가지고도 한 단어, 한 문장의 해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 결과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기쁨있는교회, 고재봉 목사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세기총, 2차로 마스크 7만 장 해외동포에게 전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마스크 10만 장 및 손 소독제와 방염복 등을 보내기로 했던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 오전 세기총 회의실(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4호)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염복 등 2차 전달식이 있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세기총 마스크보내기운동본부장 황의준 목사가 마스크보내기운동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7만장의 마스크를 세기총 대표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750만 해외동포들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마스크 전달이 선교지와 해외동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고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인사의 말을 전한 후, 마스크 7만 장을 선교사 대표로 참석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안태룡 선교사에게 전달했고, 대표로 마스크를 전달받은 안태룡 선교사의 감사 인사 순으로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세기총은 지난 3월, 1차 3만 장의 마스크 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1차 전달한 마스크는 세기총 후원이사이며, 국내 유일한 친환경 폐자장 (주)동강그린모터스' 최초 대표이사가 후원하였으며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몽골, 인도네시아, 일

본, 캄보디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의 나라 15개 도시에서 각 2,000매씩 전달하였다.

특히 세기총은 2차 7만 장의 마스크는 도움을 요청한 각국의 선교지와 해외동포들에게 전달하며, 해외동포들에게 지속적인 마스크보내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차 후원은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세기총 상임회장), 최순덕 목사(행복샘물교회, 세기총 후원이사), 오응환 교수(세기총 대외협력위원장),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준 목사(세기총 5세대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세기총 6세대대표회장), 고시영 목사(세기총 법인이사장), 심평중 목사(세기총 수석상임회장), 성문

교회와 이승주 장로 등 여러 도움의 손길의 후원이 있었다.

세기총 마스크보내기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세기총 사무처로 마스크를 보내 주거나 마스크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1매:500원 기준)을 후원하면 된다.

마스크, 손소독제, 방염복 등의 물품은(우편번호:03129)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904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마스크 지원 요청의 절차는 간략한 선교지 소개서를 세기총 사무처로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T. 02-2232-6930)

전민수 기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가 23일 2차 마스크 전달식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세기총 회의실에서 가졌다. ©(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기장 전국장로연합회, 제39회 전국장로대회 개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정진권 장로, 이하 기장 장로회)가 주최한 '제39회 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대회'가 21~23일 강원도 홍천소노벨리발디파크에서 열렸다.

기장 장로회 측은 “이날 대회는 ‘우리가 교회되자’는 주제로 500여 명의 장로들이 참석하여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지키기 지침을 이행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코로나19로 행사개최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사진행위원회의 노력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각 노회별로 함께 모여 단체버스와 승용차 등



왼쪽부터 연합회회장 정진권 장로, 김영진 장로, 김경림 장로, 김근진 장로 © 기장 총회

의 교통편으로 대회장으로 이동하여 코로나19의 방역체계에 부응하여 도착하

였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발열 체크, 참여자기록, 소독제사용,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첫날 오후 3시 개회예배 후에는 특별 순서로 기장 부총회장을 역임한 김영진 장로(국회기법재단)8.1운동UN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5선 국회의원의 3남매 장로 봉직을 축하하는 기념패 전달식도 있었다.

기장 장로회 관계자는 “선전의 독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첫째, 김영진

장로, 둘째 김경림 장로, 셋째 김옥진 목사, 넷째 김근진 장로 등 걸출한 신앙가계를 이룬 가정에게 3남매 장로 탄생을 축하하는 3형제 장로 봉직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했다.

기념패 내용은 ‘3형제 장로의 가정을 이어오므로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귀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39회 전국장로대회에서 본 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데살로니가전서5장 16-18절)’라고 한다.

노형구 기자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장기기증 서약 동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최근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씨의 장기기증 서약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이톤은 지난 2019년 12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하고 경찰에 인도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시민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2019년을 빛낸 의인에 선정돼 2020년 새해에는 대통령과 해돋이 산행을 함께하는 등의 행보가 화제를 모았다. 성폭력범을 잡으면 한 여성을 구한 에이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

지난 15일, 오후 2시 본부 사무실에서 싱어송라이터 에이톤 씨는 사후 각막기증과 뇌사 시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에이톤 씨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자라왔다”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번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계기를 말하면서는 “평소 제 인생 모토가 ‘알판 보고 간다’여서,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눈 앞에 펼쳐지면 바로 해야 한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후 재능나눔을 통해 장기기증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싶다는 에이톤 씨는 이



사랑의장기기증 홍보대사가 된 에이톤씨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모형 포토보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날,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앞으로 제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 분들을 기억하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로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최근 카카오톡 산하 프로듀서 레이블 이사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희망의 소식을 들려준 에이톤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뛰어난 재능으로 생명나눔의 주인공들을 기억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톤은 2017년 발표된 김구봉 구 히트곡 ‘이 별을 작사,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백지영, 세븐틴 도겸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최근 카카오톡 산하 프로듀서 레이블 플렉스엔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과 음반 활동을 통해 대중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민수 기자

굿네이버스, 초등생들과 ‘제12회 희망편지쓰기대회’ 희망편지 전달식

굿네이버스 경기북부권나눔인성교육센터(센터장 박인용)는 지난 23일 고양 한류초등학교(학교장 이길우)와 함께 ‘제12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희망편지 전달식을 진행했다. 고양 한류초등학교 학생들은 올해의 주인공 ‘햇산’에게 희망편지를 작성하며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에 동참하였다.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라위에서 사는 ‘햇산(남, 12세)’이다. 햇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학교 대신 벽돌공장에서 일하며 세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햇산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가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넓은 공책과 펜

으로 글을 쓰며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영상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고, 직접 ‘희망편지’를 작성하며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굿네이버스 경기북부권나눔인성교육센터는 3월부터 이달 31일까지 고양시 64개교 3만5천여 명을 포함하여 경기북부지역(파주, 구리, 남양주, 부천, 김포, 의정부, 양주, 포천 등) 323개교 21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2회



사진은 고양 한류초등학교 희망편지 전달식 사진. ©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를 진행한 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참여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희망특권 챌린지’이벤트를 진행한다. 유튜

버 ‘흔한남매’와 함께하는 이번 ‘희망특권 챌린지 시즌2’는 온라인페이지에서 ‘흔한남매’의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도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해시태그(#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희망특권챌린지)와 함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학교, 온라인페이지(hope.gni.kr)를 통해 가족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희망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대회 수상자에게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민수 기자

자연주의건강을 추구하는 www.순수자연건강.com

히포크라테스의 생애!

Hippocrates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B.C. 460? ~ B.C. 377?) 경 의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 서양의학의 선구자이며 고대 의학을 집대성한 인물.

인체의 생리나 병리를 체액론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시오!

*한 생명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양상담(제품문의) 02-512-8260 극동방송

*오전: 좋은아침입니다(협찬광고중) | 사랑에돌안 1부/2부 (광고진행)
*오후: 행복한저녁 즐거운 라디오 1부/2부(광고진행)

NAVER **히포힐스** **히포크라테스 & 히포힐스**

다 큰 삼둥이 “어려운 친구들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배우 송일국과 세쌍둥이, ㈜윌디자인그룹(대표 편석훈)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윤초록우산어린이 대한-민국-만세’ 희망 한글나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제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특별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삼둥이 대한-민국-만세의 손글씨를 모티브로 대한민국 대표 글꼴디자인 회사인 〈㈜윌디자인그룹〉의 전액 재능기부로 제작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일국 홍보대사와 함께 어린이제의 주인공인 대한-민국-만세가 깜짝 방문해 자리를 빛냈으며, 사체를 보며 신기해 했다는 후문이다.

1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한 삼둥이제는 소액기부를 통해 사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희망한글나무 캠페인’을 통해 약 365명이 일시 후원에 동참하여 수익금 250여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뒷줄(좌부터) 윤디자인그룹 편석훈 대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송일국 홍보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 앞줄(좌부터) 배우 송일국의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윤초록우산어린이 대한-민국-만세’ 서체는 개인기업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료 서체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윤디자인그룹 폰코 홈페이지(font.co.kr) 한글나눔폰트 카테고리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iOS 카카오톡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적용할 수 있다.

편지자 자료실, 윤디자인그룹 폰코 홈페이지(font.co.kr) 한글나눔폰트 카테고리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iOS 카카오톡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적용할 수 있다.

전민수 기자

2020년 카도쉬 아카데미 제1회 여름 특별 세미나

회복의교회서 8월 17일

김민호·박광서 목사 강사

다음세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 세상 속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설립된 ‘카도쉬 아카데미’에서 내달 17일 회복의 교회서 제1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김민호 목사(회복의교회)가 「이데올로기 전쟁의 핵심: 개념과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오후

에는 박광서 목사(큰사랑교회)가 「막시즘의 변천과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과 관련된 이슈들인데, 이같은 이슈들은 단순하지 않고 배후 사상과 함께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다음세대들의 공교육 현장과 둘러싼 환경들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무참히 무너지고 있으며, 교회들도 적절한 영향을 받

고 있기에 적절한 이해와 관련된 대처들을 교회와 다음세대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미나의 주 대상은 사역자이며(목사, 사모,전도사,신학생 등)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일반성도들의 문의가 많을 경우 따로 세미나를 추가 개설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일 정원까지 여유 있을 경우 선착순으로 문의한 성도들에겐 미리 연락을 하여 입장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CTS기독교TV·주다산교회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 체결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주다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가 기독교대한학교 설립을 위해 최근 주다산교회에서 ‘교육선교 동역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식에 권순웅牧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대한학교를 세우

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감경철 회장은 “CTS는 다음세대를 세우는데 선도적인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다산교회에 기독교대한학교를 세우는데 CTS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 말했다.

협약 이후, 내년 3월 기독교대한학교 개

교를 목표로 하는 주다산교회는 CTS다음세대지원센터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CTS다음세대지원센터는 학생 모집과 우수 교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도우며 교회에서 대한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BS TV	CTS 기독교TV	CGN	Good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설교/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30 TV 설교/100주년기독교교회 정현조 목사	00 CTS새벽예배-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00 생명의 삶 2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명실교 수령로교회 정필도 목사 30 말씀의센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목사	00 클래식 말씀의 창 - 박종순 원로목사 30 복음강단 -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
	6:00	10 TV 설교/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0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홍한석 목사(대전하늘문교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목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교회 권준목사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찬양하러 내 영혼아 50 노변담화
	7:00	00 TV 설교/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50 TV 설교/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40 하용조 목사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영어자막)	2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50 말씀의센터 오륜교회 김은호목사	00 C채널 REPORT 플러스 3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50 주의 빛 안에서
	8:00	40 TV 설교/꿈의 강단	00 생명의 말씀-정희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최병락 목사	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20 말씀의센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목사 50 기도하는 노크토크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00	20 TV 설교/[만나의 말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김병삼 목사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40 [삶&가정]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00 하늘카페	00 성지가 좋다 30 성학봉 목사의 통&통
	10:00	10 TV 설교/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매일 무릎기도	2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00 김자현 목사의 성경강해 30 GOODTV 오늘의 예배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오후	11:00	00 TV 설교/임석순 목사의 주일 아침 강단	00 [생방송] CTS 뉴스 50 어린이 찬양 〈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한 국 감상하기	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경산중앙교회- 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0 말씀의센터 소망교회 김경진목사 30 루터다이어리	00 힐링토크 회복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TV 설교/꽃재교회 김성복 목사 30 TV 설교/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별 총장	00 CTS창사 25주년 기념 추억의 CTS 1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30 생명의 말씀-김경재 목사(상남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말씀의센터 두란노서원교회 김상배 목사 30 일대일 양육모임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50 삶과 만나
	13:00	00 TV 설교/영광교회 윤보환 감독 30 TV 설교/광림의 말씀 김정석 목사	00 생명의 말씀-이우유 목사(마산동부교회) 30 4인 4색 김명현 박사의 성경과 과학	0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 비전설교 할렐루교회 신용대목사 3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목사	00 복음강단 - 영통영락교회 고홍식 목사 30 말씀의 창 -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
	14:00	20 TV 설교/김영재 목사의 우리들말씀	00 [생방송] 콜링갯 50 #클럽CCM	20 생명의 삶 40 [말씀]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00 믿음의 여정 우리들교회 김영재목사	00 새에덴강단
	15:00	00 오픈포럼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신앙예세이	20 2019 창조신앙교육축제	00 하늘카페 50 코리아 가스펠	00 만나 워십
	16:00	1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30 윤호균목사의 복음의통로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제인호 목사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예수님이 좋아요 30 [말씀] 류용열 목사(와성튼중앙장로교회)	20 하늘왕식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목사 50 말씀의센터 행복한교회 조영구목사	00 C채널 REPORT 플러스 30 성지가 좋다
저녁	17:00	30 TV 설교/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생명의 말씀-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10 스티븐 임의 예수님을 따르다 4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0 말씀의센터 오병이교회 권영구목사 50 GOODTV 게시판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비전메시지 -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TV 설교/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30 TV 설교/은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00 예수살렘 데이트라인 30 4인 4색 신은경 교수의 나이들어 인생 멋있게 사는 방법	1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0 행복 플러스 50 더 메시지	30 복음강단 -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00 TV 설교/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50 CBS 교회소식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전국교회는 지금	0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 40 [삶&가정]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00 세계테마기행 50 내 폰안의 교회	00 말씀의 창 - 대구은성교회 오세원 목사 30 스캇 브래너 목사의 다윗 시리즈
	20:00	0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20 생명의 말씀-김정민 목사(금란교회)	2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말씀의센터 예수소망교회곽오샘목사 30 말씀의센터 거룩한빛온장교회 유정삼 목사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TV 설교/산정현 강단(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 30 TV 설교/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	00 김성혜 총장의 비전투데이 3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00 CGN 투데이 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00 비전설교 송진교회 권준호목사 30 멘토링코리아 50 GOODTV 뉴스	10 C채널 가정예배 - 김기재 목사 30 클래식 말씀의 창 - 박종순 원로목사
	22:00	00 TV 설교/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30 TV 설교/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	00 CTS 뉴스	00 칩 잉그램의 분노 컨트롤 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 노크토크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비전 월드미션
저녁	23:00	00 CBS 금요침야예배/CBS금요침야예배 50 이윤 목사의 성경매김가:323강 - 출애굽기 12장 5-11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피의 능력	00 신앙예세이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차유집회	10 이석목사의 명쾌통쾌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찬양하러 내 영혼아
	24:00	40 TV 설교/광은교회 김한배 목사	00 콜링갯 50 어린이 찬양 〈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한 국 감상하기	10 CGN 투데이 30 생명의 삶 50 창조신앙교육 컨퍼런스(세미나-)	00 비전설교 사람살리는교회 라준석목사 30 비전설교 새로운교회 한홍목사	00 만나 워십
	1:00	10 TV 설교/민정기 목사의 그림설교	00 이태원의 I Love Jesus 30 〈교회행진〉 나의 고백 10minutes 50 TETLESTAY 테텔레스타이 : 다 이루었다	3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경산중앙교회- 50 나침반 바이블 - 김은호 교수	00 스캇브래너목사의 다윗시리즈 30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00 김학중 목사의 드림워십
	2:00	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김병삼 목사 50 #클럽CCM	20 [말씀] 김형익 목사(뽕살롱교회)	00 오 자유예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0	00 새롭게 하소서	00 Let's Talk in English 20 매일 무릎기도 30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00 [Global Sermon] John Piper's The Bible 3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00 주일예배실황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목사	00 김영재 목사의 공동체고백 50 리바이즈 워십
	4:00	00 TV 설교/땅끝까지 복음을(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나눔교회 변정현 목사	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말씀-박조준 목사	10 [말씀] 마크치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홀리스사우트워십 30 GOODTV 새벽예배 굿모닝 지저스 대한교회 윤영민목사	00 매일말씀 10 찬양하러 내 영혼아 20 C채널 명실교 다시 복음으로 -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KBS 개그맨 조래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인터뷰

개그맨 조래훈은 춘향의 도시 전북 남원 시에서 태어나 2016년 KBS 3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골프 방송 진행도 하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금 비록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으나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함으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런 조래훈을 하나님께서 한 신실한 크리스천 선생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도록 건져내셨다. 어둠에서 불러내 기이한 빛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라 믿고 따르는 ‘개튜버(개그맨 유튜브 줄임말)’ 조래훈을 만나 그의 승리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다.

-KBS 개그맨 조래훈 씨는 라디오 DJ, 대학 강사, 방송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엘르골프 이지골프에서 골프방송 유튜브 MC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개인 채널 ‘교회오빠 조래훈’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재미있는 기독교 콘텐츠를 보여주며 유튜브 시대에 맞춰 개그맨 유튜브 ‘개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고향 남원에서 남원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연기와 석사과정이라 논문 마무리를 하고 있고 박사과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데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기도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 그리고 사역까지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 아이 예능프로그램까지 취소가 됐다. 마음이 지치고 꿈을 향해가는 길이 막힌 거 같았다. 우리 같은 개그맨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묻곤 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직업을 바꾸고 있다. 행사이벤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사업을 접고 열감지 카메라 사업 등 코로나를 대비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고민하고 원망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민할 시간도 아까웠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술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KBS 개그맨 시험에도 빠르게 합격했다고 들었다. 기도가 남다른 것 같다. 원래 꿈이 뭐였나?

“원래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장영동 목사님 같은 재미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해군 연예병사로 입대해서 MC를 맡게 됐고, 개그를 가르쳐주는 극단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희극 연기를 배우게 됐다. 그러다가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서 천 명 중에 10명 뽑는데 불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은 어릴 때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했을 때 한 선생님 “래훈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말씀해 주시며 도움을 주신 덕분이다.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매 순간순간 길을 가도 혼자 있어도 운동을 해도 늘 학교, 교회, 집만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했었다.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매일 매일 교회에서 살았는데 십자가 보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등 정말 많이 하나님께 여쭙어보고 연에 인 되고 싶다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주력약과 같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셔서 기도의 때의 기도의 타이밍에 맞춰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어릴 때 풀림 노래 제목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과 내용들이 하나님 마음에 청약과 같이 기도 응답 분량의 1순위로 해주신 거 같다.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어머니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다. 그래서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 감사하다.”

-조래훈 씨는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

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는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눠달라.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우울한 삶을 살았다. 게다가 공부도 적성에 안 맞아 힘들었다. 공부 못한다고 매일 혼나지만 한나가 더하기 싫어서 축구를 시작했다. 중학생까지 축구선수를 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고등학교도 예술고로 진학했는데 연기를 배우면서 너무 행복했다. 신기하게도 1등 해서 장학금도 받았다. 사람은 다 자기 적성이 있는 것 같다(웃음)

초등학교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선생님이 있었다. 공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쇠자로 손등을 때리고 빵도 때리고 기초 생활수급자인 나를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는 정반대의 선생님을 만났다. 내 인생 최대의 운명적 만남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선생님은 4대째 기독교를 이어온 집안이셨고 선생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 그 선생님께서 나에게 학교 축제 때 공부 못하는 나에게 사회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다. 그렇게 무대에서 ‘차력쇼’를 하면서 사회를 보았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다. 비록 한 선생님은 학대를 당했지만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 말고 이 길이 내 길이구나’를 처음 깨닫게 된 계기였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학생회장을 나가라고 하셨다. 학생회장 기준이 상위 15% 들어야 하는데 학적을 바꾸면 써까지 나를 학생회장이 되게 해주셨다. 선생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예고를 갈 실력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는데 진학할 수 있게 레슨비도 후원해주시고 예고에 합격하고 나서는 장학재단에 편지를 보내서 장학금까지 받게 해주셨다. 대학 합격했을 때는 등록금, 입학금도 지원해주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래훈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 감사해요. 하나님 점심 드셨어요’ 하면서 항상 아빠처럼 대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체능 계열이 음란하기도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누군가를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한다.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신숙히 무를 꿇고



부모의 이혼과 학업 부진으로 힘든 시기에 크리스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개그맨이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그맨 조래훈 씨

최근 코로나로 모든 행사 취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 생겨 초등생 때 부모님 이혼... 부진으로 선생님께 줄자로 맞기도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웃음이 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 다짐

중학생 때 크리스천 선생님 통해 예체능에 적성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 예고 예대 진학까지 지원 아끼지 않아 결국 KBS 개그맨 공채 합격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돌리는 삶 살고자

빠르게 회개하려고 하는 편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는 코로나 행사가 끊겨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해야 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골프 채널에서 연락이 와 MC를 맡게 되어 너무 놀랐다. 여러 프로님들에게 무료로 골프 레슨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히 진행하고 있다. 또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일하자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살려주신다는 게 간증이 고 기적이다.

그리고, 신앙의 시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목사님 딸과 권사님 딸이 전도를 해서 시작했다. 외할머니께서 누나 두 명에게 래훈이를 교회로 데려오면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누나들이 나를 1년 동안 교회 나가게 하려고 잡으러 다녔다. 나는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낄 찾지 않는 것을 보며 허전해서 누나들을 찾아서 교회에 갔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체감을 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를 가서 성령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다.”

-요즘 깊이 다가오거나 좋아하는 성구나 자주 듣는 찬양은 어떤 게 있나.

“교회 문 앞에서 앓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오직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앓은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나도 내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은 나를 위로해줄 수 없었지만, 오직 내게 있는 예수그리스도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이다. 이 찬양도 역시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내가 시름시름 앓고 있어도 귀 기울여 주시고 있다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들 때마다 눈물이 나는 찬양이다.”

-최근 기도 제목과 앞으로 계획은?

하루빨리 코로나 19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사라져 예술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 자녀답게 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기도 중이다. 좋은 회사를 만나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유튜브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부족하다. 매일 같이 나를 인도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조성호 기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프지않게 치료하는 주드림치과

그리스도 중심의 치과진료
환자중심의 포괄적인 진료
얼굴전체의 조화를 꾀하는 진료
학문적근거의 신뢰할만한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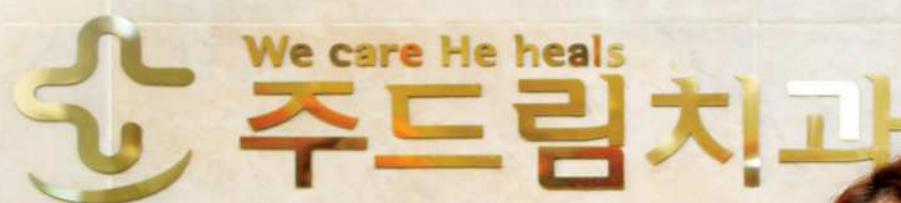
진료과목 및 특징

임플란트, 교정, 턱관절질환, 심미보철, 소아진료, 소아교정

턱관절 전문 스프린트 제작
교정치료와 연계된 턱관절질환 치료
교정원장님이 바벨 염려가 없이 교정책임진료
최신물리치료장비 및 치료실 완비
무절개임플란트 수술, 최소침습 임플란트 수술
컴퓨터 무통마취기 사용, 안아픈 치과진료 시스템
심리적 치과공포해소를 위해 원장과 전스텝이 일심으로 노력

국내 진료봉사 및 수납액 일정금액 한국컴센트 통한 어린이후원

해외선교사 및 목회자(가족포함), 선교단체 간사님 특별 할인혜택



이상수 원장 Profile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보스톤대학교 임플란트과 Advanced course 수료
보스톤대학교 심미보철 Continuing Education course 이수
Dr.Donald Kitzis Memorial Institute(NYU) 보철 및 통합진료과정 수료
AIC Professional Implant Training course 수료
University of Pennsylvania Microendodontics course 수료
SM dental institute super GP course 이수

성민지 원장 Profile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대목동병원 임상교정과 석사과정 졸업
보스톤대학교 교정과 continuing education course 정식 수료
Dr.Donald Kitzis Memorial Institute(NYU) 교정 course 수료
일본 카나키와 치과대학 연계 JS dental institute 교정 Master course 수료

www.judream.co.kr

예약문의 032-329-7582

평일오전 9:30 ~ 오후 6:30 (화요일 야간진료 오전 10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00
매주 수요일 휴진(단, 공휴일이 있는 수요일은 정상진료), 일요일/공휴일은 휴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 3동 1058-2 중동프라자 203호
신중동역(7호선) 4번출구 3분거리

We care He heals
주드림치과

sys 씨스팡

씨스팡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이벤트!

2020.07.28~2020.08.03



**관절팔팔 3개월분 구매 시
비타민D 2박스 증정**

**혈관팔팔 3개월분(6박스) 구매 시
활력팔팔 2박스 증정**

**비타민D
2000IU**

**활력
비타민B**

관절팔팔 초록입홍합추출오일

- V 7년 연속 생산실적 1위
(2012~2018 관절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중)
- V 국내 최초 관절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 V 국내 7개 대학 병원 인체적용시험 결과
2달 섭취 후 **90% 관절 건강 개선**
(인체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팔팔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SOD

- V 2년 연속 국내매출 1위
(2017~2018 혈행개선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중)
- V 국내최초 식약처로부터 '혈관벽두께 증가 억제 기능성'
인정 받은 혈관관리제품
- V 프랑스 국립예방의학센터에서 3년간의
인체적용시험으로 기능성 인정